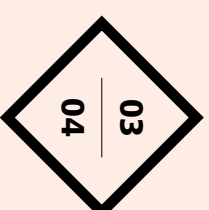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저산관리

TWO CHAIRS

MARCH + APRIL
2026 vol.77



우리은행 퇴직연금으로!

퇴직은 우아하게

연금은 우아하게

우리나라  우리은행

비대면 가입 시 IRP 수수료 0원 | 587종 이상의 엄선한 투자상품 보유

영상광고 바로보기 ※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하여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펀드 운용시 운용금액에 대한 펀드보수 별도 부과 ※ ETF 183종, 펀드 404종 '25.9월말 기준, 대면/비대면 클래스 함께
[RP유의사항] * [DC/RRP]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저리펀드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0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과 대체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실적비행형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금융상품 가입시 환급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입하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2.10) 투자설명서 및 진흥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0원입니다.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 타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해지 시 잔액에 대한 수수료 적용합니다. *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펀드 운용시 운용금액에 대한 펀드보수 별도 부과됩니다. * 개인형 IRP 대면 영업점 창구 수수료는 후취연 0.25% ~ 연 0.45% / DC의 수수료는 후취연 0.38% / 인자 부담금 기준입니다. * 상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이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하여 16.9%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 내용은 가입 전에 핵심설명서와 계약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1599-1000) (상담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12713(20251222~2026123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제 25-04396호(20251017~20251231))

March and April

The Season of Awakening



〈TWO CHAIRS〉 3+4월호에서는 인공지능·블록체인·웹 3.0 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요즘, 미래 자산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라지는 금융 트렌드와 디지털 자산, 투자 대가들의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최대의 과학 축제가 열리는 에든버러를 비롯한 스코틀랜드의 명소와 장신구, 공예품, 앤티크 가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TEFAF 마스트리흐트 아트 페어, 사막 위의 도시 두바이에서 즐기는 골프 리조트에 관한 기사도 담았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TWO CHAIRS〉와 함께 내일의 번영을 위해 오늘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Special Theme

06 REPORT
2026 MONEY SHIFT

12 FOCUS
디지털 자산 사용 설명서

16 HOW TO
Notes from the Masters
대가의 투자 노트

20 SENIOR TREND
자산관리 2.0

Trend

24 TRAVEL
놀이처럼 즐기는 유럽 최고의 과학 페스티벌
2026 에든버러 과학 축제

30 LOCAL TOUR
봄 바다와 함께하는 근대 문화유산 여행
목포

34 ARCHITECT
색이 도시를 바꾸다
회색을 거부한 다채로운 세계 건축

40 GOLF
<골프월드> 선정, 2026 세계 100대 골프 리조트
Dubai Creek Golf & Yacht Club

44 GOLF LESSON
시즌 첫 라운드
스코어를 지키기 위한 필승 오르막 어프로치

48 WHAT'S UP
고요를 찾아서



52 CONCERT
공간에서 완성되는 취향의 디테일
소규모 클래식 음악당 가이드

56 ART
렘브란트와 앤디 워홀이 만나는 곳
7,000년의 미술사를 아우르는 TEFAF 아트 페어

60 FOOD TREND
시간이 빚어낸 맛
Charcuterie

64 PEOPLE & BOOKS
한강의 독서가 향하는 질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66 HEALTH
일일 뇌 안티에이징



Wealth

70 MEET
부의 미래를 설계하다
TWO CHAIRS W 판교

76 INVESTMENT
케빈 위시가 이끌
연준의 통화정책

80 REAL ESTATE
집은 좁아도 삶은 넓게,
셀프스토리지에 관심받는 이유

84 TAX STORY
아픈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살펴봐야 할 '장애인' 절세 혜택

88 BUSINESS REPORT
로봇이 일상으로 쪽~
CES 2026에서 보여준 AI의 현재

92 READERS LETTER



격월간 <TWO CHAIRS>는 (주)한경매거진앤북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주)한경매거진앤북
발행일 2026년 3월 1일 • 3-4월호 제11권 제2호(통권 제77호)
디자인·인쇄 (주)한경매거진앤북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TWO CHAIRS> 매거진은 우리은행 금융 수신 평균 잔액 및 거래 실적 기준 상위 1만 명을 선정해 발송하는 PB고객 우대 서비스입니다.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선정 주기	연 1회	연 2회(상·하반기)
실적 인정 기간	'25년 07월 ~ '25년 12월	(상반기) '25년 06월 ~ '25년 11월 (하반기) '25년 12월 ~ '26년 05월
DM 발송 기간	'26년 03월 ~ '27년 02월	(상반기) '26년 03월 ~ '26년 08월 (하반기) '26년 09월 ~ '27년 02월

※ 마케팅 DM 수신 동의 고객 限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PECIAL

The Future of Money

사회 변화에 따라 자본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웹 3.0 같은 신기술이 이끄는 부의 지형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산관리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와 키워드는 물론, 자산관리의 노하우까지 소개합니다.



2026 MONEY SHIFT

2026년,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격변의 해라 불리는 올해,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지형도 변화를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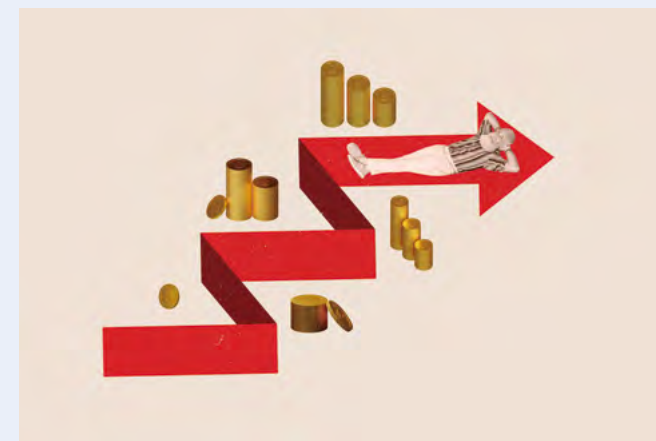
Editor_ 유나리 Photo_ 게티이미지뱅크, 벡티지, 언스플래시, 한경DB
Reference_ 우리금융그룹 '2025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AI시대의 시니어 라이프', KDI 한국개발연구원



1

여전히 주인공은 나야나
국내 자산 시장의 핵심,
시니어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고령화 속도에 가속이 붙어 207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시니어 세대가 사회 구성원의 절반이 넘는 '주류'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시니어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면 현재의 시니어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린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풍족한 경제적 기반과 늘어난 기대 수명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전반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금융의 중심도 시니어 세대다. 우리금융그룹의 '2025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의 조사는 급부상한 현재의 시니어를 '뉴노멀 시니어^{New Normal Senior}'라 명명하고, 이들이 사회 문화, 금융 전반을 이끄는 사회경제적 핵심 주체라고 정의한다.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초기(20대), 청년 후기(30대), 중년(40~54세), 시니어(55~69세)의 연령 구분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합한 총자산 규모는 시니어가 가장 높았다. 시니어의 총자산은 청년 초기의 5.4배에 달했다.



2

저물어 가는 부동산 불패 시대
이제 투자와 운용 시대

20대의 5.4배에 달하는 시니어의 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금융그룹의 '2025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의 자산 기여에 크게 공헌한 것은 부동산. 20대와 비교해 금융자산은 2.8배, 부동산은 7배가 높아 자산 축적에 부동산의 기여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미래를 보는 눈은 바뀌고 있었다. 시니어와 2030세대 모두 과반 이상이 "지금은 부동산으로 시니어 세대처럼 부를 쌓기 어렵다"고 답한 것. 심지어 부동산 보유율이 높은 시니어 세대도 부동산보다 금융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니어 세대에게 '자녀 세대가 투자해야 할 상품'을 묻자 상위를 차지한 것은 금융 상품인 반면, 투자하지 말아야 할 상품 중 상위로 꼽힌 것이 부동산이었다. 앞으로 돈의 흐름은 금융 투자 역량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운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부의 세대 이전 서막 오른 디지털 금융 시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동향은 어떨까? 거대한 자산 이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 그룹 UBS의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총 83조 달러(약 1경2,0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자산을 이전받은 젊은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젊은 세대에게 가상 자산 투자로 인한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내 18~35세의 젊은 투자자 중 45%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노년층의 3배에 달한다. 국내 사정도 비슷하다. 국내 은행이 펴낸 '2025년 부유층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0~50대 한국 금융 소비자의 25% 이상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금융자산의 평균 14%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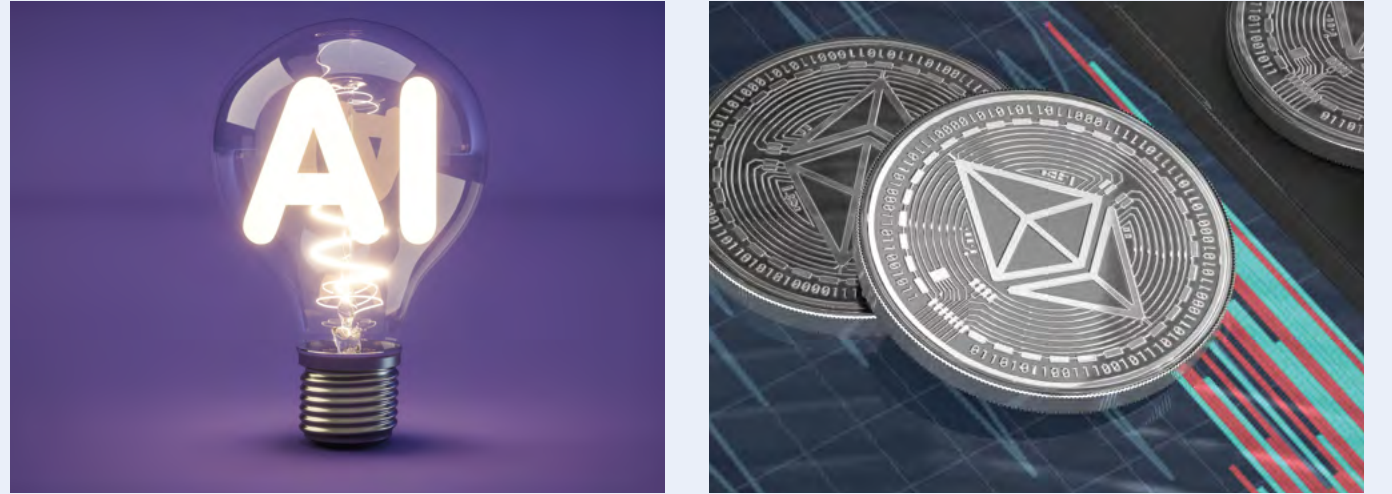
더 젊어진 투자 전선 원인은 자본적 허무주의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절반 이상이 취업 전부터 투자에 대해 배운다고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20% 남짓이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심장하게 높은 수치다. Z세대 약 3분의 1 이상이 대학이나 성인 초기 시절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Z세대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가 '경제적 자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금융 문해력에 대한 갈증도 높다. 이들이 이렇듯 빠르게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투자 전선에 뛰어드는 이면엔 미래에 대한 비관이 자리한다. 세계경제포럼은 Z세대가 금융 문해력에 갈증을 느끼는 이유로 이전 세대만큼 정부나 연금에 의존할 수 없다는 불안한 현실 인식을 꼽았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자본적 허무주의'^{Economic Nihilism}라 일컫는다.

5

AI, 이상품어때? 새로운 투자 파트너, AI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갈증은 투자의 보법도 바꾼다. 세계경제포럼의 조사 결과, 투자 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2023년 3분의 1 수준에서 최근 절반까지 늘었다. 단, AI에게 전적으로 돈을 맡기고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자기 생각을 검증하고 상담하는 투자 조언자의 역할로 활용했다. Z세대는 자신들의 금융 습관이 타인에게 가장 오해받는 영역 중 하나라고 느끼며, 그런 만큼 자신들의 방식을 평가받지 않는 비대면 영역을 선호한다고.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 대면 상담보다 AI가 의사 결정을 심판 또는 판단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며, 상담사보다 더 잘 이해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AI 챗봇 기능을 갖춘 금융기관을 더 신뢰하고, 주식 현황이나 투자·채무 설계·절세 비법 등을 마치 연에게 가십처럼 소개하는 틱토키와 인스타그램머 등을 추종하며, 경제를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



6

격변의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금융 중심으로 점프

디지털 금융의 전면 부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선 암호화폐 시장 변화는 어떨까? <포브스>가 발표한 '2026년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목할 트렌드'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이 보인다. 이들의 결론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더 깊이 편입되고,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2023년 이후 규제 환경이 완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시장 유입이 늘어나면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큰손들의 움직임이 있다. 그간 비트코인을 "무가치하고 위험한 자산, 탈중앙화 폰지 사기"로 평가해온 JP 모건이 올 초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를 임명하고, 전사적인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조율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7

소리 없이 강하다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은 비트코인 거래가 늘면서 생겨난 필연적 코인에 가깝다. 2008년 10월에 처음 등장하며 암호화폐 시대를 연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던 돈에 대한 인식과 거래법을 뒤흔들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투자 정도로만 알았던 돈을 불리는 방법이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완전히 달라진 것. 이 실제 없는 코인이 과연 진짜 화폐인지, 투기용 사이버 머니(?)인지 혼란도 커졌다. 이런 금융시장의 혼란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말뜻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너무 커 화폐로서의 기능은 제로에 가깝다. 아침엔 한 개에 1,000원이었지만 저녁에 5만원이 된다면 이 화폐는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변동성을 보완해 '1코인=1달러 혹은 1유로'처럼 코인의 가치를 법정화폐에 고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만약 1코인이 5달러라면, 10코인은 50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달러에 고정된다. 이렇게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비밀보호법상 금융기관에 포함시켰고, 홍콩도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만들고 발급 허가제를 도입했다. 국내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계획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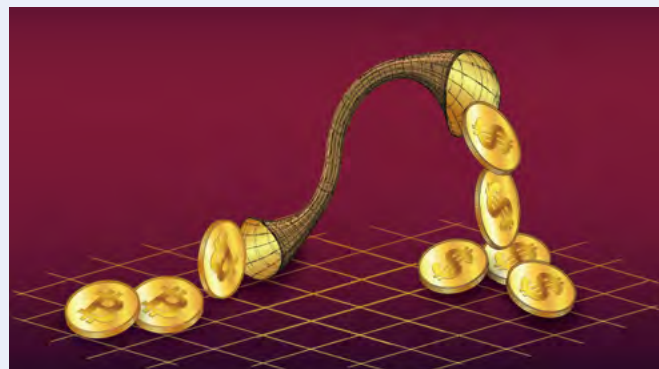


8

토큰으로 대동단결 자산 토큰화 심화

'토큰화(Tokenization)'란 주식, 채권, 부동산은 물론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토큰의 가치는 연결된 자산과 연동되며, 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토큰이 대표하는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 토큰화가 현재 심화되고 있다.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는 "금융시장과 증권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등이 머니마켓펀드(MMF)의 토큰화 추진을 지난해 7월 발표하는 등 금융권에 토큰화 열풍이 거세다.

그렇다면 토큰화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단 거래를 살펴보자면, 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일을 포함해 결제가 완결되기까지 3영업일이 걸린다. 토큰화된 주식 거래는 중개 기관이 없어져 이 총 3영업일의 시차 없이 수분에서 수초 내 거래가 완료될 수 있다. 전 세계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유동성과 확장성도 갖췄다. 글로벌 컨설팅사 BCG는 2030년까지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가 약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채와 MMF는 물론이고 부동산·인프라·탄소 배출권 등 복합 자산의 영역까지 확장될 것이며, 최소 투자금이 낮아지고 공시표준도 도입되며 기관은 물론 일반 투자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 예측이다.



9

더 정교하게, 더 다양하게 하이브리드 금융 탄생

새 국면을 맞이할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 상품은 더 정교해지고, 서로 다른 영역이 융합될 전망이다. 복합 금융 상품 체계가 탄생할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단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확산하며 신용 창출이 가능한 기초 자산으로 편입되기 시작했고, 전통적 자산 운용사가 토큰화 채권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등을 점진적으로 선택하며 전통적 투자법과 새로운 결제법이 만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아래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됐다.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에는 투자자가 토큰화 펀드나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이 법정화폐로 대출해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



디지털 자산 핵심 용어 정리

금융 전환의 시대, 디지털 자산의 기본 개념 몇 가지는 숙지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고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이 포함되는, 전산화돼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통칭한다. 디지털 문서, 음향, 동영상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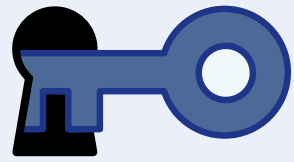
가상 자산 실물 없이 컴퓨터에 정보 형태로 남아 있는 자산을 말한다. 거래는 사이버상에서만 이뤄진다. 암호화폐, NFT 등이 해당한다.

블록체인 Blockchain 블록은 암호 기술에 기반한 일종의 기록을 의미한다. 이런 블록이 체인 형태로 연결, 결속된 것이 블록체인이다. 각각의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시간 기록이 담긴 해시(Hash)값과 거래 정보가 있어 블록이 서로를 증명해준다. 한 블록의 정보를 바꾸면 체인에 연결된 다른 블

록값도 바뀐다. 따라서 블록은 기존의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디파이 DeFi 은행 같은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금융 형태. 디파이 플랫폼에서 자금 대출, 가상 자산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탈중앙화 금융이라고도 일컫는다.

스마트 콘트랙트 Smart Contract 블록체인 기반으로 체결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우리가 아는 일반 계약서가 블록체인화된 것이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프로그래밍된 조건에 따라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계약이 수행된다.



디지털 자산 사용 설명서

대세는 디지털 자산이라는데, 속속 터지는 가상 자산 관련 뉴스는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디지털 자산 8문 8답.

Editor_유나리 Photo_게티이미지뱅크 Reference_국세청,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가상 자산 A to Z>(한국경제신문 펴냄)



Q1 가상 자산, 어떻게 사고파는 건가?

가상 자산에 투자하길 원한다면 일단 국내외의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야 한다. 가상 자산 거래소 하나하나가 독립된 시장이라 특정 거래소에서 주문하면 해당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된다. 내가 가진 가상 자산의 가격은 해당 거래소 내에서만 움직인다. 빗썸에서 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간다고 업비트 내의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시장 흐름에 따라 유사하게 등락할 수는 있다. 가상 자산 거래소를 골라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면 된다. 최소 투자 금액은 거래소마다 다르며, 빗썸은 5,000원부터 매수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금액의 비율만큼 매수하면 된다. 가상 자산 거래소마다 거래가 가능한 가상 자산이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가상 자산도 있으니 거래소를 선택하기 전 확인은 필수다.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Q2

내 가상 자산,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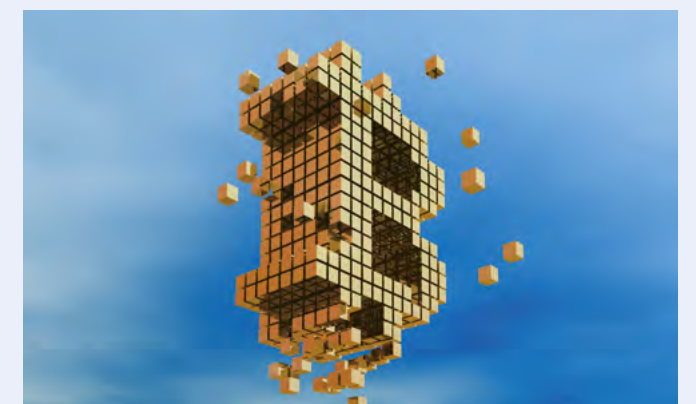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식으로 돈을 보관한다. 가상 자산도 비슷하다. 국내에 정식 등록된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만들고, 해당 거래소에 가상 자산을 보관하면 된다.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 보관할 수도 있다. 또는 디파이라는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해 보관하기도 하고, 개인이 직접 가상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을 만들 수도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은 '핫월렛(Hot Wallet)',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형태의 지갑은 '콜드월렛(Cold Wallet)'이라 부른다. 핫월렛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으나 해킹에 취약하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핫월렛에서 발생한다. 콜드월렛은 보안성은 좋으나 실시간 거래는 할 수 없다. 핫월렛은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내 지갑을 사용하려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접속해 주소록 등에서 메타마스크를 등록하면 거래소 내의 지갑과 개인 핫월렛이 연동된다. 콜드월렛은 USB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분실하면 상당히 곤란하니 잘 챙겨야 한다.

이상적인 가상 자산 지갑 분배는? 전문가들은 하나의 월렛에만 가상 자산을 담아놓지 말라고 충고한다. 자주 하는 소액 거래의 가상 자산은 핫월렛에, 장기 보유할 대규모 가상 자산은 콜드월렛에 7:3의 비율로 나눠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가상 자산 거래소에 맡긴 내 자산, 이자도 주나?

준다. 이자를 받는 방법은 스택킹(Stacking)과 예치(Deposit) 두 가지가 있고, 방법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다. '돈을 건다', '말뚝을 박는다'는 의미처럼 스택킹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 자산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해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 자산을 받는 방식이다. 스택킹 기간 동안 가상 자산을 회수할 수 없는 일종의 적금 형태. 예치는 말 그대로 가상 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 자산을 받는 형태다. 스택킹과 똑같아 보이지만, 예치는 가상 자산 거래소가 예치받은 가상 자산을 사용해 직접 차익 거래나 디파이 등으로 낸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디파이 플랫폼에 가상 자산을 빌려주면 해당 플랫폼은 이 가상 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받은 대출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자처럼 지급한다.





Q4

가상 자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월렛으로 옮기면 추적 못 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상 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블록체인은 특성상 자금 이동 경로가 영원히 남는다. 또 국내 거래소는 100만원 이체 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과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해외 거래소 간 공조가 이뤄지면 신원 확인도 가능할 수 있다. 결론은 꿈수 부리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단위가 크고 눈에 보이는 실체도 없어 위험한 발상을 하기 쉽다. 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대가도 크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트래블룰이란?

가상 자산 이전 경로를 파악해 가상 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파악하고, 규제하기 위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중 하나.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 자산을 이전받는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가상 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가상 자산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Q5

거래소가 상장 자산을 폐지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가상 자산 거래소가 특정 가상 자산을 상장 폐기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가상 자산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등의 목적에서다. 그러나 해당 자산 투자자에게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다. 가상 자산 상장 폐지는 가상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투자자는 거래소에 배임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배임죄에 해당하려면 거래소에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가상 자산 거래소가 그러한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가상 자산의 상장 및 폐지 기준, 거래 사고 발생 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주요 내용

- 가상 자산 사업자의 유형별 인가 및 등록, 신고 규제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가상 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 의무, 전산 안정성 확보
- 소비자 보호 규율 마련 및 불공정 행위 금지
- 신규 가상 자산 발행·유통 시 공시 의무



Q6

코인과 토큰, 뭐가 다를까?

코인(Coin)과 토큰(Token)은 헷갈리기 쉽지만 다른 개념이다. 코인은 교환 수단이자 가치 보존 수단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 내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다. 코인은 코인만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만 실행, 거래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면 코인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퀀텀·스팀·넴 등의 코인은 모두 독립적 블록체인 생태계,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

토큰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오스, 트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토큰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다른 블록체인 안에서 코인처럼 가치를 지니며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이다. 코인은 현금, 토큰은 주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Q7

금 같은 실물 자산도 가상 자산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 투자시장에도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일명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금이다. 실물 금 가격에 따라가는 디지털 자산으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의 테더 골드 등이 대표적이다. 금 가격과 연동된 토큰을 거래소에서 사면 된다.

요즘은 이렇게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대세다. 일명 'RWA(Real World Asset)'이다. 이 단어는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테니 기억해두자. 부동산, 채권, 주식, 미술품, 원자재 등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거래 및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부동산 토큰화 플랫폼인 리얼티(RealT)는 주거용 부동산을 토큰화해 판매한다. 투자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는 리얼토큰을 구매하고,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각각의 지분율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받는다. 국내 간송미술관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유권을 대체 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 NFT)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Q8

가상 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 소득세를 내야 할까?

현재는 개인이 가상 자산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어도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이 넘는 기타소득에 대해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시행은 유예된 상태. 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과세될 예정이니 참고하자. 단,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았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



Notes from the Masters

대가의 투자 노트

투자 대가들이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투자에 대한
전망과 조언을 마음속에 새겨보자.

Editor_ 유나리 Photo_ 게티이미지뱅크, 한경DB
Reference_ <금융의 연금술>(조지 소로스 지음, 다산북스 펴냄), <짐 크레이머의 영리한 투자>(짐 크레이머 지음, 흐름출판 펴냄)



“빠른 변화는 모두를 흥분시키지만,
복리는 결국 남는 사람 편에 선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장기 투자’로 잘 알려진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올해 초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그런 만큼 버핏의 마지막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버핏은 공공연하게 “가상 자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그가 은퇴를 예고한 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식을 대거 사들여 주목받았다. 전 세계 AI 시장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에 투자했다는 것은 그가 시대의 변화를 인정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단기 종목이 아닌, 변화의 선봉에 선 흐름에 투자한 것이다. 특히 다가올 디지털 금융 시대에 기억해둘 만한 것이 있다. “부자는 되지만, 천천히 된다.” 이는 “빠른 변화는 모두를 흥분시키지만, 복리는 결국 남는 사람 편에 선다”는 또 다른 말과 일맥상통한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복리는 필수인데, 그 복리는 이해하고 학습하고 숙고하며 기다려 ‘남아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의 시대, 인내하며 시장을 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의미로 새겨두자.



“내가 가진 유일한 경쟁력은
재귀성 이론이다”

헤지펀드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능한 승부사다. 그의 투자법은 잘 알려진 ‘재귀성 이론’. 그는 시장은 인간이라는 참여자가 있는 한, 결코 균형을 향해 갈 수 없다고 봤다.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시장 안에서 ‘합의된 의식’을 읽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불균형 속에서 새로운 합의가 생겨나는 순간을 짚싸게 잡아챈다. 그가 찾은 새로운 규칙은 무엇일까? 소로스 펀드가 최근 집중 투자하는 곳은 구글과 아마존. 빅테크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우주 등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구글은 업계 추정 우주 사업 기업인 스페이스X의 지분을 7~8%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또한 우주 사업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미래 가치가 있을 만한 기업에 투자를 단행한 소로스. 아마 지금이 그가 포착한 혼란 속 기회의 순간이 아닐까.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복리는 필수인데,
그 복리는 이해하고 학습하고 숙고하며 기다려 ‘남아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투자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시장의 온도’를 확인하는 핵심 요소다”

워런 버핏의 조언자, 하워드 마르크스

50여 년 동안 총 다섯 차례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마르크스(Howard Marks) 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의 지론이다. 그의 투자 메모 이메일은 워런 버핏도 가장 먼저 챙겨 볼 정도다. 그의 비결은 ‘시장의 온도’를 읽는 것인데,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과거로 돌아가 ‘패턴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현재 벌어지는 사건의 함의를 이해하려면 결국 시장의 역사와 동향을 알아야 한다는 것. 또 다른 비결은 ‘낙관과 비관이라는 양극단의 상황을 주시하라’는 것이다. 대중의 사고가 극단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일 때는 현재의 주가 수준과 방향이 지속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결국 주가란 과잉과 조정 과정을 거쳐 평균 가격에 수렴하게 되어 있으니 보유한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고 추가 매수하거나, 하락했다는 이유로 매도하지 말라는 것.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을 매수하다 보면 ‘거품(버블)’이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을 매도하면 ‘대폭락’이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가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는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조언은 “균중심리와 거리를 두고 그에 휩싸이지 말라”는 그의 다른 조언과 일맥상통한다. 금융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계적 결정이 아닌 투자자의 감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니 그 움직임을 잘 파악하되 휩쓸리지는 말라는 것이다.



“파괴적 혁신에
투자하라”

기술주 투자 큰손, 캐서린 우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혜성처럼 등장한 투자계의 신성이자,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캐서린 우드(Catherine Wood) 캐시 우드의 투자 지론이다. 캐시 우드는 아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기에 테슬라를 주목해 선제 투자했고, 큰 성공을 거두며 화제를 모았다. 우드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강조하며 생소하던 신기술 분야에 크게 베팅했고, 1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부 미국 투자 고수들은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투자 종목 비중을 조정할 정도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상품은 파괴적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또 다른 철칙은 ‘5년 이상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것. 그만큼 우드의 포트폴리오는 ‘하이 리턴(High Return), 하이 리스크(High Risk)’일 수밖에 없다. 우드는 현재 AI, 로봇공학, 에너지 저장, 유전체, 블록체인, 핀테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테마에 집중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그는 가상 자산 투자에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린다. 그는 “가상 자산은 대체 불가 토큰과 디파이 등으로 기존 금융 산업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의 투자 가치도 높이 평가했다.



“현명한 투자 방식을 넘어 시장 변화에 따라
여우처럼 대응하는 ‘영리한’ 투자를 하라”

월스트리트의 미친 소, 짐 크레이머

유명한 금융 분석가이자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에서 <매드머니>라는 인기 프로그램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Jim Cramer)는 한때 <포브스>가 뽑은 ‘돈을 가장 잘 아는 사람 3인’ 중 한 명이었다. 그와 같이 뽑힌 사람은 워런 버핏, 켄 탐이코노믹스의 창업자인 매티 그린스판(Mati Greenspan)이다. 짐 크레이머는 초단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유명해졌지만, 손해를 크게 본 해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안정하게 보였다. 결국 그는 투자회사를 청산하고 경제 전문 프로그램 진행으로 전향했다. 크레이머의 요즘 예측은 어떨까? 그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크레이머는 지난해 여름 한 방송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헤지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경제 위기를 피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념과 지배적 견해를 거스르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투자계의 인디애나 존스, 짐 로저스

“가보지 않은 곳에 기회가 있으니 모니터를 끄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짐 로저스(Jim Rogers)의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견해는 어떨까? 그는 과거 인터뷰를 통해 일부는 긍정, 일부는 부정했다. 그가 긍정적인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가치. 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며, 전기처럼 모든 산업에 사용될 근간 기술이라고 평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화폐가 통용될 것이라는 점은 추측이 아닌 확신이지만, 가상 자산이 지닐 통화적 성격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그는 “모든 화폐는 결국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며 “화폐 통치권을 방치할 정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 역시 정부의 통제 아래 발행될 것이며, 민간에 의한 가상 자산이 통화 역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가 본격화된다면 여타 가상 자산은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봤다. ●

과거로 돌아가 패턴을 찾아야 한다. 현명한 투자는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산관리 2.0

요즘 자산관리 시장의 핵심은 '시니어', '가상 자산', '인공지능' 등으로 압축된다. 이제 이 셋이 만나 새로운 자산관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Editor_ 유나리 Photo_ 게티이미지뱅크 Reference_ 우리금융그룹 '2025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AI 시대의 시니어 라이프'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춰 자산관리도 첨단 의 옷을 입는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 5대 은행은 물론이고, 카카오뱅크 등 디지털 전문 은행까지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추세다. 실제 사람이 아닌 AI 행원이 우리에게 투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도우며 금융 컨설팅에 나선다. AI가 탑재된 디지털 데스크나 아예 AI로만 운영하는 은행 무인 점포까지 생겼다. 일부 은행은 자체 앱 내에 가상 자산 거래소의 계정을 연동해 보유한 가상 자산 종류, 시세, 수익률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탑재했다.

디지털 금융 큰손으로 떠오른 시니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시니어 세대는 잘 적응하고 있을

까? 답은 "그렇다". 우리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 세대의 AI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향후 이용할 의향은 다른 세대와 유사한 84.8%에 달했고,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금융 AI 서비스 투자 성과가 사람보다 좋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세대보다 더 좋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금융자산이 많은 시니어일수록 기대감이 더 높았다. 그 이유로는 "시장 상황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 상담보다 접근성이 쉬워서" 등을 꼽았다. 가상 자산 등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도 높았다. 그간 젊은 층이 주도해온 가상 자산 시장에서도 근 2년 사이 시니어 세대가 큰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시니어 세대의 가상 자산 등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도 높다. 그간 젊은 층이 주도해온 가상 자산 시장에서도 근 2년 사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빗썸에서 고액 계좌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대였다. 그 뒤를 이은 것은 40대와 60대이며, 계좌 증가율은 60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이 주로 투자하는 가상 자산은 비트코인. 60대 이상 업비트 고객이 보유한 가상 자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3%가 비트코인이었다. 20대와 30대가 주력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 자산을 뜻하는 알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금융에 거부감도 적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전성이 여전히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핵심은 신뢰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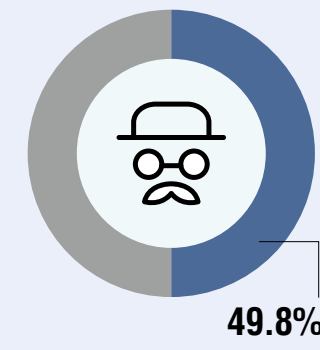
이런 기준은 변화와 혁신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는 의미. 이에 은행들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통합 라이프스타일 플래너'를 지향한다. 과거와 같은 예적금 위주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변화의 시기를 함께 경험하며 넘길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시니어 전용 브랜드와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이 시니어 전용 브랜드 '우리 원더라이프'를 출범하며 우리WON뱅크에 '시니어 통합 서비스'를 개설

한 것이 대표적. 자산관리는 물론 부동산, 신탁, 디지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또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AI가 맞춤형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우리WON 포트폴리오'도 출시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통신^{IT} 교육을 해주는 'IT배움터'도 운영한다. 가상 자산 등을 통한 자산관리가 일반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 자신의 금융 이해력과 기술 접근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이 위한 준비를 은행이 함께 하고,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다. 가상 자산 거래소는 기존에 젊은 층 위주로 운영하던 서비스를 시니어 세대까지 확대해 거래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상담해주는 오프라인 라운지를 만들거나, 시니어를 위한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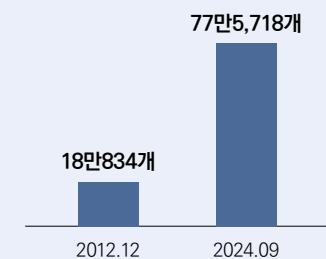
가까운 시일 내 가상 자산의 제도권 안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스템 변화도 활발한 추세다. 우리은행은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 정보를 같이 표시한다.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며 관련 지표 또한 시장의 동향을 읽을 때 필요한 주요 지표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금융은 삼성웰컴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나 송금을 하도록 하는 기술 연동 추진도 논의 중이다. ●

금융 분야에서 AI를 이용해본 시니어 비중



자료 우리금융그룹

가상 자산 거래소의 60대 이상 계좌 수



자료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TWO CHAIRS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스티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 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 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스티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청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행사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TREND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 등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처럼 즐기는 유럽 최고의 과학 페스티벌 2026 에든버러 과학 축제

에든버러에서는 과학도 하나의 놀이가 된다.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에든버러 과학 축제 기간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흥미진진한 실험에 참여하고, 과학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나 공연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과학을 만난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실험실로 변하는 시간이다.

Writer_두경아 Photo_VisitScotland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는 세계적 문화 예술 축제와 학술 행사가 연중 이어져 '축제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VisitScotland/ Kenny Lam

에든버러^{Edinburgh}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중세 건축물과 조지 왕조 시대의 우아한 신시가지가 공존하는 도시다. 세계적 문화 예술 축제와 학술 행사가 연중 이어져 '축제의 도시'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중 하나가 에든버러 과학 축제^{Edinburgh Science Festival}다. 1989년 시작된 이 축제는 유럽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 과학 페스티벌로 손꼽힌다.

올해 축제는 'Going Global'을 주제로, 4월 4일부터 19일까지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어셔홀 등 25개 장소에서 펼쳐진다.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117개 프로그램이 폭넓게 마련되어 있으며, 즐거운 체험형 활동부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강연, 역동적 퍼포먼스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영국은 과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다. 1799년 왕립 연구소^{Royal Institution}를 통해 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과학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넓혔고, 1831년 출범한 영국과학협회^{British Science Association}는 과학자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과학을 일상과 사회 발전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스코틀랜드 역시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역사가 깊은 나라로 꼽히며, 그 중심에는 16세기에 설립된 에든버러 대학교가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과학사를 조망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는 예술가 게일 총관 박사^{Dr. Gayle Chong Kwan}가 제작한 대형 판타지 조각과 프린트 설치 작업 'The Great Instauration'이 전시되며, 참여형 체험 활동도 열린다. 관람객은 설치 작업의 연구 과정에 영감을 준 과학 도구들을 직접 실험해보고,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 가져갈 수도 있다. 또한 빛의 과학을 직접 체험하며 원리를 탐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Edinburgh Science Festival



에든버러 과학 축제의 무대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몰입형 위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화석 발굴, 범죄 수사... 흥미진진한 체험 이벤트

먼저, 어서홀에서는 흥미로운 강연이 이어진다. 영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헬렌 샤먼(Helen Sharman)이 강연자로 나서 1991년 미르 우주정거장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담을 들려준다. 야생동물 촬영감독이자 작가이며 TV 진행자인 함자 야신(Hamza Yassin)이 들려주는 야생동물 촬영감독으로 겪은 특별한 이야기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에든버러 대학교에서는 에든버러의 골목을 걸으며,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세계적 물리학자들과 관련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에든버러 이론물리학 도보 투어'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뇌 과학 및 진화적 연관성으로 탐구해보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유'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는 '과학 축제 페이버릿(Science Festival Favourites)'을 내걸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몰입형 위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룡 발굴'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자들이 화석을 발굴할 때 사용하는 실제 기술과 도구를 체험하고, 자신만의 화석 모형을 만들 수 있다. 'CSI: 범죄 현장 수사'에서는 과학 수사관이 되어 현장을 조사하고 단서를 추적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밖에도 슬라임을 직접 만들어보는 '스플랫-테스티(Splat-Tastic)', 의사와 간호사 역할 놀이를 통해 인체 구조와 건강을 배우는 '미니 메딕스: 보디 쇼(Mini-Medics: The Body Show)', 로켓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로켓 쇼' 등이 마련되어 있다. AI와 코딩 등 최신 기술을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 '테크 디코디드(Tech Decoded)'나 시니어를 위한 AI 강좌 '인생은 50부터' 등도 주목할 만하다.

동식물과 지구를 통해 탐험하는 우리의 미래

에든버러 동물원에서도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쇼부터 폐장 후 진행되는 특별 가이드 투어까지 연령대에 따라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이어진다. 또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을 주제로 한 강연과 공예 체험, 전문가와의 만남 등 교육적 요소를 더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하며, 동물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에서는 식물과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봄꽃이 만개한 정원을 배경으로 지도를 따라 이동하며 미션을 완성하는 체험과 전 세계의 다양한 식물 및 식물원 리빙 컬렉션을 직접 관찰하는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월드 오브 원더(World of Wonder)'에서는 공예 활동과 몰입형 VR 체험을 통해 팜 하우스 레노베이션 과정을 살펴보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에든버러의 유일한 과학 체험 공간인 다이내믹 어스(Dynamic Earth)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를 통해 지구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우주 속 지구의 위치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지구라는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를 체험형 전시로 만나보는 워킹 투어 '허턴 인 에든버러(Hutton in Edinburgh)',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해 우주·의학·로봇공학·슈퍼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는 '7 데이즈, 100 사이언티스트(7 Days, 100 Scientists)'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1. 에든버러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쇼부터 폐장 후 진행되는 특별 가이드 투어도 운영한다.
2. 에든버러 식물원에서 진행되는 '월드 오브 원더'에서는 공예 활동과 몰입형 VR 체험을 통해 팜 하우스 레노베이션 과정을 살펴본다.
3. 에든버러 과학 축제에서는 누구든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다.





© VisitScotland / Kenny Lam

에든버러성은 12세기에 건축된 이후 왕실 거처이자 군사 요새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왕실 유물과 군사 유산 및 스코틀랜드의 국가적 상징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시가지 투어

에든버러 박물관, 동물원, 정원부터 에든버러 대학교까지 과학 축제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시 곳곳을 여행하게 된다. 하지만 에든버러에 왔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명소가 있다. 중세의 풍경과 현대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에든버러는 성곽과 골목, 언덕과 박물관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풍경이 의미 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단연 에든버러성이다. 도심 한가운데 솟은 화산암 언덕 위에 자리한 이 성은 스코틀랜드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다. 12세기에 건축된 이후 왕실 거처이자 군사 요새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왕실 유물과 군

사유산 및 스코틀랜드의 국가적 상징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성벽 위에 오르면 구시가지 풍경이 한눈에 펼쳐져 최고의 전망대로도 사랑받고 있다. 성내 부분 아니라 성으로 올라가는 길 역시 놓치지 말 것. 골목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입체적 도시 구조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

에든버러성에서 홀리루드 궁전까지 이어지는 로열 마일 Royal Mile은 도시의 역사적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식 1마일' 길이의 구간에는 과거와 현재의 의회 건물, 법원, 대성당과 교회 등 주요 역사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동시에 다양한 관광 명소와 상점, 레스토랑, 카페, 펍 등이 뽐뽐하게 들어서 있어 에든버러의 활기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VisitScotland / Kenny Lam

영국 왕실의 스코틀랜드 공식 거처 중 한 곳인 홀리루드 궁전



© VisitScotland / Kenny Lam

가장 아름다운 에든버러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칼턴 힐

그림 같은 스코틀랜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명소들

로열 마일의 끝자락에 위치한 홀리루드 궁전은 영국 왕실의 스코틀랜드 공식 거처 중 한 곳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매년 7월의 '홀리루드 주간'이라 일컫는 일주일간 이곳에 머무르며 집무를 보았으며, 찰스 3세 역시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궁전 뒤편으로 펼쳐지는 킹스 파크라 불리는 홀리루드 공원 역시 아름답다.

칼턴 힐 Calton Hill은 석양 무렵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전망 명소다. 스코틀랜드의 국립 기념물 National Monument of Scotland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덕분에 에든버러 특유의 역사적 스카이라인과도 조화를 이룬다. 특히 해 질 무렵 따스한 빛이 도시를 감싸는 순간, 이곳은 에든버러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망대로 변신한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림 같은 마을 딘 빌리지 Dean Village가 나타난다. 워터 오브 리스 Water of Leith 강변을 따라 자리한 딘 빌리지는 800년 동안 물레방아가 돌아가던 제분 마을이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길에는 오래된 석조 건물과 작은 다리들이 이어져 도시 한가운데서도 마치 동화 속

마을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중심에는 마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웰 코트 Well Court가 자리한다. 1880년대 물레방아 노동자들의 주거 공간으로 지은 붉은 벽돌 건물로, 시계탑과 아늑한 안뜰이 특징이다. 과거 산업 마을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아름다운 외관 덕분에 에든버러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중 한 곳으로 꼽힌다. ●

2026 에든버러 과학 축제

기간 4월 4~19일
장소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어셔홀, 에든버러 대학교 등 에든버러 시내 곳곳 25개 장소
프로그램 어린이, 성인, 시니어 등을 위한 다양한 117개 과학 체험 및 강연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edinburghscience.co.uk
에든버러 가는 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든버러까지 운항하는 직항편은 없으며, 런던이나 암스테르담·파리·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이용해야 한다. 에든버러 공항에서는 트램이 시내와 바로 연결돼 있어 약 30분이면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1

1. 목포스카이워크 주변으로 힙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몰려 있어 젊은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2. 아시아에서 가장 길이가 긴 목포해상케이블카
3. 목포를 상징하는 목포대교

봄 바다와 함께하는 근대 문화유산 여행 목포

목포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놀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다. 해안 산책로와 스카이워크에서 바다 풍경을 만끽하고, 원도심에서 근대 문화유산의 흔적을 만나본다. 우리나라 남서쪽 끝 목포에서 바다가 전하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껴보자.

Editor_ 정şam미 Photo_ <SRT 매거진>

목포스카이워크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고, 인근에 카페와 펍이 밀집한 목포의 핫플을 찾는다면 목포스카이워크를 이정표 삼아 들르면 된다. 유달유원지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목포스카이워크는 닷 모양을 형상화한 전망대형 구조물로, 목포대교와 고하도 및 다도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전남 목포시 해양대로 59

목포해상케이블카

아시아에서 가장 길고,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해상·육상 케이블카로 기록되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총연장 3.23km 구간으로, 북항 승강장에서 유달산·고하도 스테이션을 연결한다. 일반 캐빈과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을 운영하는데, 스틸감은 역시 크리스털 캐빈이 압도적이다. 해발 약 155m에서 펼쳐지는 유달산과 다도해 바다 풍경은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차 없이 고하도에 갈 수 있는 매력 만점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 왕복(대인, 일반 캐빈 기준) 2만4,000원

📍 전남 목포시 해양대로 240

목포대교와 고하도

특히 야경이 백미인 목포대교는 목포의 바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국도 1호선의 시점인 목포대교를 따라 달리면 목포시 내항에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고하도에 닿는다.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갈 때 첫 번째 행선지이던 고하도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고하도이충무공유적, 판옥선을 형상화한 고하도전망대와 약 2,000m에 달하는 해상 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을 두루 만날 수 있다.

📍 전남 목포시 죽교동 일원



2



3

木浦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물전시관)

1975년 한어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한국 수중 문화재의 역사적 발굴이 시작됐다.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만 20여 곳, 14척의 난파선을 비롯해 10만 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인양됐다.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바다의 신비와 그 안에 잠든 역사 유물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만날 수 있다. 해저 고고학과 해양 유산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 고고학 박물관으로 상설전시실 4개 관, 기획전시실, 어린이 체험관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해양교류실에서는 완도 해역에서 발굴된 고려청자 유물 약 3,000점, 신안해저유물실에서는 약 2만2,000점에 달하는 신안선 유물과 고려·신안 선박 복원 모형도 만날 수 있다.

₩ 무료 ◯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1.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 유산 전문 박물관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전시된 난파선들
2.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을 한곳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3.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인 목포근대역사관 1관
4. 목포모자아트갤러리에서는 근대 패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모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2



3

목포근대역사관 1관

유달산을 등지고 선 붉은 벽돌 건물은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많은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은 목포 최초의 서구적 근대 건축물로, 옛 목포 일본영사관으로 쓰였다. 건립 당시의 내외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항으로 목포의 어제와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 등 굵직한 목포의 역사를 다룬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건물 뒤편으로는 강제 동원된 피해 현장인 방공호도 자리한다.

₩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 전남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



4

목포모자아트갤러리

1927년 개업한 '갑자옥 모자점'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운영한 유일의 모자점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1층은 모자의 역사와 다양한 스타일을 소개하는 전시실, 2층은 미디어 아트 홀, 3층은 체험 존·아트 홀·휴게 존 등으로 구성된다. 본관 옆의 2관에서는 모자 자수 코너(별도 비용 지불)가 마련되어 나만의 특별한 모자를 제작해볼 수도 있다.

₩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 전남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20-2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목포세관은 목포가 개항하기 이전 '해관'이라는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22년 6월에 개관한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은 1908년 준공된 구 목포세관 본관 터에 남은 큰 창고와 작은 창고를 목포의 역사 및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두 건축물은 원래 외국 물품을 임시 보관하는 보세 창고로 1955년 준공했다. 큰 창고는 목포의 미식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문화 행사가 열리며, 합리적 가격에 민어·불고기·영양돌솥밥을 즐길 수 있다. 작은 창고에서는 목포 해관의 역사를 전시물과 미디어 아트로 조명한다. 외부에는 2020년 발굴 조사로 기초 부분이 확인된 구 목포세관 본관 터를 야외 전시물로 보존했다. 당시 건물은 외벽에 붉은색 벽돌, 입구와 창틀에 화강석을 사용하고, 내부에 관장실·은행원실·사무실·응접실 등을 갖춰 그 위용을 짐작케 한다. ●

₩ 무료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9



1



©MVRDV

색이 도시를 바꾸다

회색을 거부한 다채로운 세계 건축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소재, 마감 등 실험적 건축물들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색'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원색과 다채로운 조합으로 외관을 완성해 도시 풍경을 재구성한 이 건물들은 분위기를 전환하고,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Writer_ 두경아 Photo_ 각사진에표기

도시의 색을 반영한 복합 건물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히블록스 Schiebloks

'건축의 도시'라 일컫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기차 선로를 따라 길게 뻗은 오피스 빌딩으로, 좁고 긴 부지에 높이 61m, 길이 약 150m 규모로 계획됐다. '3D 동네'라는 콘셉트로 설계한 이 건물은 여러 개의 컬러 블록을 입체적으로 쌓아 올린 형태다. 꾸준히 실험적이고 컬러풀한 작업을 선보여온 건축 스튜디오 MVRDV가 설계를 맡았다. 건물은 주변 건물의 성격과 역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는데, 상층부는 높이를 조절해 철도 건너편 주거지의 일조량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의 거장 도널드 저드 Donald Judd의 다채로운 가구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각 블록은 로테르담의 역사적 건축물에 착안한 창호 패턴과 색채를 적용했다. 인근 보행교의 선명한 노란색, 로테르담 시청의 사암 색 등이 반영됐으며, 팔각형 창 형태 안에는 로테르담의 지역 전화 번호 '010'을 형상화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한 설계 요소다. 전체 11개 블록 가운데 2개는 재활용 벽돌을 사용했고, 3개 동의 파사드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을 적용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옥상에는 조경 스튜디오인 유를링크&헬릭 Juurlink & Geluk이 설계한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이 옥상 정원은 빗물 저류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높이의 옥상을 잇는 나선형 계단을 통해 건물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만든다. 녹지 위로는 태양광 패널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해 그늘을 만드는 동시에 상당한 양의 에너지도 생산한다.

- 1. 스히블록스는 기차 선로를 따라 길게 뻗은 부지에 들어서는 건물로, 높이 61m, 길이 약 150m 규모다.
- 2. 조경 스튜디오 유를링크&헬릭의 설계로 옥상에 조성된 녹지 공간



역동적 캔틸레버, 컬러풀한 발코니
보조코 아파트
Wozoco Apartments

MVRDV가 처음으로 선보인 컬러풀한 주거용 프로젝트다. 건물 외벽에서 돌출된 발코니와 캔틸레버 형태의 외형은 멀리서도 단번에 시선을 끈다. 특히 각기 다른 색으로 마감한 발코니는 건물에 경쾌한 리듬을 부여하며, 역동적인 입면을 완성한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자를 위한 1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갤러리형 동선(통로식 발코니)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졌다. 암스테르담은 계속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빛, 공기, 공간'이 위협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주변 건물의 일조권을 해치지 않아야 했다. 이러한 제한된 부지 안에서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MVRDV가 농담처럼 제안한 아이디어가 해법이 됐다. 일부 세대를 외벽 밖으로 돌출시키는 과감한 설계였다. MVRDV는 북측 파사드에서 13세대를 캔틸레버 구조로 돌출시켰고, 동서 방향으로 배치된 세대들은 인근 녹지를 조망하면서도 남북 방향 세대들의 채광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대 간 벽체는 방음 성능을 높이기 위해 8cm 더 두껍게 시공했다. 이 여유 공간은 돌출 구조의 접합부를 수용하는 역할까지 겸하며, 기능과 구조를 동시에 해결하는 설계적 해법이 됐다. 이처럼 구조적 실험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설계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낮은 건축비로 실현한 사회주택으로 기록됐다.



- 1, 2 역동적으로 튀어나온 발코니는 다채로운 컬러로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3 캔틸레버 형태로 돌출시켜 동서 방향으로 배치한 세대들은 인근 녹지를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남북 방향 세대들의 일조 조건을 해치지 않는다.



©MVRDV

3

숲을 이루는 노란 큐브들
큐브 하우스
Kubuswoningen

큐브 하우스는 로테르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 명소다. 도시 한복판 블라크역 위에 54.7도 기울어진 노란 큐브들이 숲처럼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은 '블랙 숲(Blaak Forest)'으로도 불린다.

1984년 건축가 피트 블롬(Piet Blom)이 설계한 이 주거 단지는 '도시의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기(living as an Urban Roof)'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높은 주거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상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주거 방식으로, 내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단지에는 38채의 큐브형 주택과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13채의 대형 큐브가 있다. 전통적 주거 건축 개념을 거부한 블롬은 정육면체 한쪽 모서리를 기울여 육각형 기둥 위에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큐브 하우스는 서로 맞물리듯 연결되어 독특한 파사드를 형성한다. 지상층은 삼각형 평면으로 구성해 거실로 사용되며, 상부로 갈수록 공간이 확장된다. 벽이 기울어 있어 내부는 실제 면적보다 넓게 느껴지지만, 구조적 특성상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제한적이다. 최상층에는 18개 창이 설치돼 도시를 향해 시원한 조망을 확보한다. 현재도 주민이 거주 중이지만, 박물관으로 조성된 호실이 있어서 들어가 살펴볼 수도 있다.



- 1 네덜란드 로테르담 블라크역 위에 54.7도 기울어진 노란 큐브들이 숲처럼 들어서 있다.
- 2 큐브 하우스는 서로 맞물리듯 연결되어 독특한 파사드를 형성한다.
- 3 피트 블롬이 설계한 큐브 하우스와 연필 모양의 '펜슬'은 로테르담 블라크 지구를 상징하는 실험적 주거 건축으로, 인근의 마르토타와 함께 도시의 현대적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



© Iris van den Broek

3



©WienTourismus/Paul Bauer



©WienTourismus/Paul Bauer

1.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의 독특한 개성이 고스란히 녹아든 첫 건축물이다.
2. 외벽을 뒤덮은 강렬한 색채, 곡선으로 흐르는 형태, 서로 다른 패턴의 창과 기둥은 건축이라기보다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심에 들어선 거대한 예술 작품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Hundertwasserhaus

컬러풀한 건축물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의 독특한 개성이 고스란히 녹아든 첫 건축 작품으로, 1985년에 완공되었다. 빈에서 손꼽히는 독창적 건축물 중 하나로 공동주택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 외벽을 뒤덮은 강렬한 색채, 곡선으로 흐르는 형태, 서로 다른 패턴의 창과 기둥은 건축이라기보다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다가온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 요제프 크라비나(Josef Kravina)와의 협업으로 완공됐다. 세월이 지나 색채의 선명함은 다소 부드러워졌지만, 그 강렬함은 여전히 건재하다.

옥상은 900톤의 흙을 쌓아 조성한 녹지로 덮여 있다. 건물 곳곳의 창과 발코니에서는 식물이 자라나는데, 훈데르트바서는 이를 '나무 세입자'라 불렀다.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등장하는 나무와 풀은 건물과 자연의 경계를 흐린다. 현재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내부 관람은 불가능하지만, 입장권 없이도 로비·숍·안뜰까지는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맞은편의 쇼핑몰 훈데르트바서 빌리지 역시 그의 아이디어로 완성된 공간으로, 보다 가까이에서 색과 장식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쿤스트 하우스 빈(Kunsthau Wien)에서도 훈데르트바서의 건축적·예술적 비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1. 붉은 외벽은 지중해의 푸른 하늘 및 거친 암석 풍경과 극적 대비를 이루며, 자연의 순수함을 더욱 또렷하게 부각한다.
2.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계단 세트를 연상시켜 최근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절벽 위 붉은 미로 라 무라야 로하 La Muralla Roja

'붉은 벽'을 뜻하는 라 무라야 로하는 스페인 칼페(Calpe)에 위치한 라만사네라(La Manzanera) 개발 지구 안에 자리한 주거 단지다. 외부와 내부를 감싸는 강렬한 색채는 이 건축물의 정체성이다. 붉은 외벽은 지중해의 푸른 하늘 및 거친 암석 풍경과 극적 대비를 이루며, 자연의 순수함을 더욱 또렷하게 부각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계단 세트를 연상시켜 최근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건축물 역시 북아프리카의 전통 성곽 도시인 '카스바(Kasbah)'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실험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973년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리카르도 보필(Ricardo Bofill)과

그의 건축 그룹 타예르 데 아르키텍투라(Taller de Arquitectura)가 설계했다. 요새처럼 형상화된 매스는 절벽에서 솟아오르는 성곽을 연상시킨다. 건물은 서로 맞물린 계단과 플랫폼, 다리로 이루어진 입체적 구조를 통해 50세대의 주거 공간을 연결한다. 이 동선 체계는 전통 카스바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현대적으로 변주한 것이다. 색의 대비는 라 무라야 로하를 더욱 극적으로 만든다. 외관은 다양한 톤의 붉은색으로 마감해 주변 자연과의 긴장을 강조한다. 반면 계단과 복도 및 공용 동선은 하늘색에서 인디고, 보라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파란색으로 마감해 지중해의 푸른 하늘과 하나 된 듯 조화를 이룬다. ●



챔피언십 코스 18번 홀. 두바이 크리크와 여러 인공 호수가 맞닿아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프로 선수에게도 악명 높은 고난도 홀이다.

〈골프월드〉 선정, 2026 세계 100대 골프 리조트

Dubai Creek Golf & Yacht Club

사막 위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페어웨이, 그 뒤로 솟아오른 유리와 철골의 마천루. 두바이로 떠나는 골프 여행은 클럽 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비현실적 풍경을 예고한다. 황량한 모래 위에 골프장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여정은 작은 기적에 가깝다.

사막 위에 자리한 신기루 같은 코스

이국적 휴양지로 이름을 알린 두바이는 이제 골프 여행지로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11월부터 3월, 한국이 매서운 추위로 골프 비수기일 때 두바이에서는 골퍼를 위한 절정의 시간이 시작된다. 낮 최고기온이 25℃를 넘지 않는 환상적 날씨, 건조하면서도 서늘한 기후는 이국적 풍경과 함께 완벽한 골프 컨디션을 제공한다. 6월부터 9월은 낮 기온이 40℃ 이상 올라가기에 이른 아침 또는 해 질 무렵 라운드를 추천한다. 두바이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한국 골퍼에게 낯선 사막형 코스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울창한 리프 대신 '웨이트 에어리어'라 일컫는 자연 그대로의 모래 지대가 펼쳐진다. 벙커가 아니기에 클럽을 지면에 댈 수 있고, 연습 스윙도 가능하다. 돌과 사막 식물이 섞여 있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리프보다 과감한 샷을 허용하기도 한다. 익숙한 상식이 흔들리는 순간이다.

사막 위의 도시 두바이는 이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다. 11~3월 북반구의 국가들이 골프 비수기에 들어가는 시즌, 새로운 골프 성지로 두바이가 주목받고 있다.

Writer_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_ 두바이 크리크 골프 & 요트 클럽



지폐에도 등장할 정도로 두바이라는 도시의 상징성을 지닌 클럽 하우스 전경



물 위에 티박스가 있어 시그처 홀인 6번 홀. 저 멀리 부르즈 할리파를 배경으로 멋진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시각적 대비는 두바이 골프를 더욱 환상적으로 만든다. 인공 관개시설로 정교하게 관리한 양잔디의 선명한 초록과 코스 외곽의 붉은 사막 모래가 극명하게 갈린다. 페어웨이는 마치 사막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 조금만 빗나가도 끝이라는 압박감이 샷 하나하나에 긴장을 더한다. 지형적 특성도 색다르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 골프장과 달리 두바이의 사막 코스는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거의 없다. 그만큼 바람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은 공의 궤적을 순식간에 바꾸고, 때로는 모래바람이 플레이의 흐름을 흔든다. 여기에 고온을 견디기 위해 개발한 특수 잔디 때문에 지반이 단단해 런이 많이 발생한다. 쇼트게임에서의 계산과 정교함이 필수다. 해가 지면 낮의 열기를 피해 환한 조명 아래에서 즐기는 나이트 골프도 두바이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유럽 골프 스타 헨리크 스텐손(스웨덴)은 두바이 골프의 매력에 빠져 10년 넘게 두바이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지폐에 등장한 세계 유일 클럽 하우스

두바이를 상징하는 크리크와 마리나를 내려다보는 두바이 크리크 리조트는 두바이 골프 여행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두바이 크리크 골프 & 요트 클럽과 파크하얏트 두바이가 어우러진 이 두바이 크리크 리조트는 두바이 골프와 럭셔리 여행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공간이다. <골프월드 Golf World>는 올 초 발표한 '세계 100대 골프 리조트' 최신 랭킹에서 "2024년부터 DP월드투어 프리미엄 대회인 두바이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하는 챔피언십 코스를 중심으로 파크하얏트 두바이와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37위에 올랐다. 이 골프장을 상징하는 것은 단연 클럽 하우스다. 전통 아랍 범선 '다우'의 돛을 형상화한 건물은 두바이의 해양 유산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낸 랜드마크다. 설계자는 브라이언 존슨. 그는 라틴 세일(삼각형 돛)에서 영감을 받은 8인치 모형으로 계

약을 따냈고, 반사 연못을 통해 건물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효과를 냈다. 요트 클럽은 고급 크루즈의 선수처럼 설계했다. 클럽 하우스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골프장 건물이 지폐에 새겨진 곳이기도 하다. UAE 20디르함 지폐에 이 클럽 하우스가 담겼다. 코스 설계는 칼 리튼이 맡았다. 이후 2004년 토마스 비외른과 유러피언 골프 디자인이 재설계를 진행하며 난도와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닉 팰도, 세베 바예스테로스, 어니 엘스, 아오키 이사오가 참가한 첫 프로 대회는 이 코스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오아시스를 가로질러 정교한 샷으로 공략

챔피언십 코스에서는 정교한 샷이 핵심이다. 사막 위에 형성된 코스는 그 어느 지역 코스보다 지반이 단단하다. 여기에 워터헤저드와 언들레이션으로 둘러싸인 페어웨이는

골퍼에게 샷의 날카로움은 물론 멘털의 단단함도 시험한다. 두바이 크리크와 인공 호수가 여러 홀과 맞닿아 있어 매 홀마다 환상적 아름다움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그린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부담도 안긴다. 특히 17, 18번 홀(모두 파 4)은 프로 선수들에게도 악명 높은 홀이다. 왼쪽으로 흐르는 두바이 크리크, 오른쪽에 자리 잡은 워터헤저드와 벙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한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오아시스에서의 라운드는 두바이라는 도시의 에너지를 그대로 닮아 있다. 전통과 도전, 그리고 압도적 풍경. 두바이 크리크 골프 & 요트 클럽은 중동 골프의 헤리티지로 남아 라운드마다 잊기 힘든 기억을 선사한다. 라운드를 마친 뒤에는 근처에 있는 '올드 두바이'에서 사막의 기적 이전의 원형을 느껴보자. 두바이를 가로지르는 크리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알파히디 역사 지구에서는 두바이의 마천루 뒤에 숨어 있던 소박한 사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다. ●



시즌 첫 라운드 스코어를 지키기 위한 필승 오르막 어프로치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골프 시즌이 시작됐다. 봄철 필드는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어여쁜 꽃망울이 반갑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 아직 새싹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누런 잔디, 계절적 요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바람, 겨우내 굳어버린 딱딱한 지면까지. 시즌 첫 라운드, 안정적인 스코어를 만들기 위한 필승 오르막 어프로치 방법을 소개한다.

Writer_ 이루나 Photo_ 이루나, 프리픽

겨울 동안 라운드와 연습이 부족했던 골퍼라면 봄철 필드에서 마주할 상황은 더욱 까다롭다. 스윙 감각은 둔해지고, 콘택트는 불안정해지며, 작은 변수 하나에도 미스 샷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 고로 시즌 초 클럽별 비거리가 많게는 한 클럽씩 줄어들기 마련인데 여기에 한국 골프장의 특성상 엘리베이트드 그린^{Elevated Green}, 이른바 포대 그린 이 많다는 점은 어프로치 난도를 한층 더 높인다. 엘리베이트드 그린이란 산지를 깎아 조성하고, 장마가 잦은 한

국의 환경 특성상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린을 주변 지면보다 높게 만든 구조다. 세컨드 샷 공략에서도 부담이 크지만, 특히 실수를 만회해야 하는 어프로치 상황에서는 골퍼를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공이 놓인 지형이 평탄하지 않다 보니 어드레스 단계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안감이 스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수록 감각에 의존하기보다 상황에 맞는 원칙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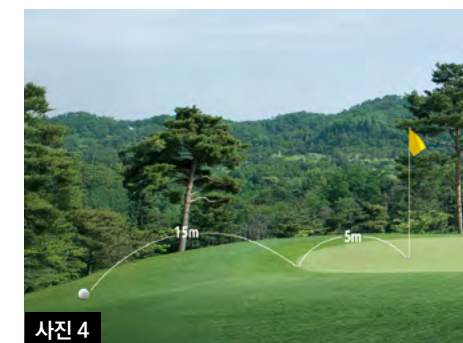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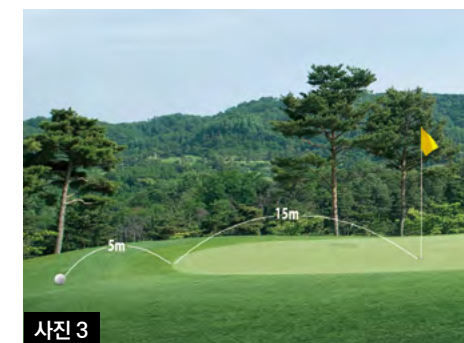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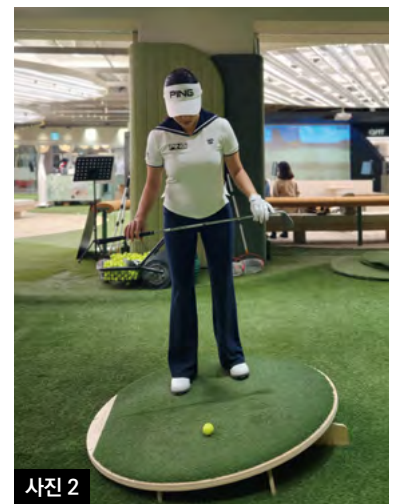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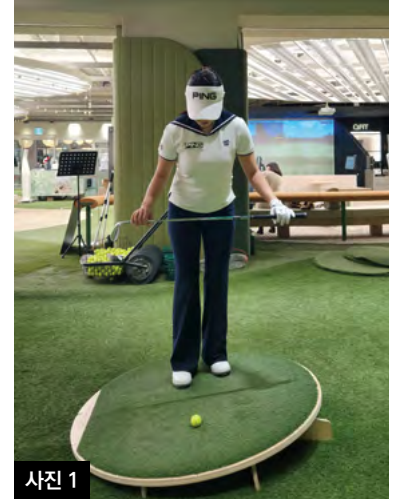
오르막 어프로치, 두 가지 선택 기준

오르막 어프로치에서 골퍼가 가장 많이 겪는 고충은 클럽 헤드가 지면에 박힌다는 것과 보내고자 한 거리보다 턱없이 짧게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르막 어프로치는 클럽 헤드가 지면에 박히면 안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오르막 어프로치에서는 클럽이 지면에 박히는 샷이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명확히 나뉜다. 클럽이 지면에 박히는 샷과 박히지 않는 샷은 스윙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어드레스 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진 1은 클럽이 지면에 박히는 샷이 나올 때의 어드레스다. 그리고 사진 2는 클럽이 지면에 박히는 샷이 나오지 않을 때의 어드레스다. 여기서 체중 위치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자. 클럽이 지면에 박히는 샷이 나올 때의 어드레스는 체중을 왼발에 뒹우며 경사지를 이기고 서 있다. 반면 클럽이 지면에 박히지 않을 때의 어드레스는 체중을 오른발에 뒹우며 경사지와 수평하게 서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드레스를 취해야 할까?

상황을 읽는 것이 먼저다

기준은 단순하다. 공이 그린에 떨어진 뒤 굴러야 하나, 구르지 않아야 하는 가다. 우선 깃대까지 구를 공간이 충분할 때(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런이 발생해야 할 때) 사진 3을 보면 볼에서 에지까지의 거리가 5m로 비교적 가깝고, 에지에서 깃대까지는 15m로 거리가 멀다. 이럴 때에는 볼이 그린에 떨어져서 바로 멈추는 것보다는 런이 발생하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다. 왼발에 체중을 두고 경사지를 이기는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경우다. 사진 4를 보면 깃대까지 구를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런이 발생하면 좋지 않을 때) 반대로 이 상황은 볼에서 에지까지는 15m로 비교적 멀고, 에지에서 깃대까지는 5m로 비교적 가깝다. 볼이 그린에 떨어져서 런이 발생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오른발에 체중을 두고 경사지와 몸을 수평으로 맞춰 서는 것이 좋다.



공의 위치에 따라 어프로치 전략이 달라진다.

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가지 타격 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프로치에 성공할 것인지에 따라 체중을 어느 쪽으로 실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해 타격한다.

체중을 왼발에 두고 치는 법

깃대까지 구를 공간이 충분할 경우 체중을 왼발에 두고 친다. 우선 어드레스 시 체중을 왼발에 두고 경사지를 이기고 선다. 볼이 그린에 떨어진 뒤 런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체중을 왼발에 두고 경사지와 몸을 수평으로 맞추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몸을 경사지와 수평하게 맞출 경우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 각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가령 선택한 클럽이 56도라면 경사지와 몸을 수평하게 맞춰 섰을 때는 56도가 아니라 57도, 58도처럼 로프트 각도가 더 높게 된다. 이는 플레이어가 예상한 것보다 볼이 덜 굴러가게 만든다. 런이 필요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그다음 팔로스루가 짧게 끊기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센 힘으로 타격한다. 왼발에 체중을 두고 경사지를 이기고 섰기 때문에 클럽은 지면에 박힐 수밖에 없다. 이는 미스 샷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 현상이다. 클럽이 지면에 박혀 팔로스루가 짧게 끊기는 점을 감안해 평소보다 조금 더 센 힘으로 타격하거나, 다운스윙 시 스피드가 감속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사진 5
어드레스 시 체중을 왼발에 두고 경사지를 이기고 선다.



사진 6
팔로스루가 짧게 끊기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센 힘으로 타격한다.



사진 7
어드레스 시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경사지와 몸을 수평하게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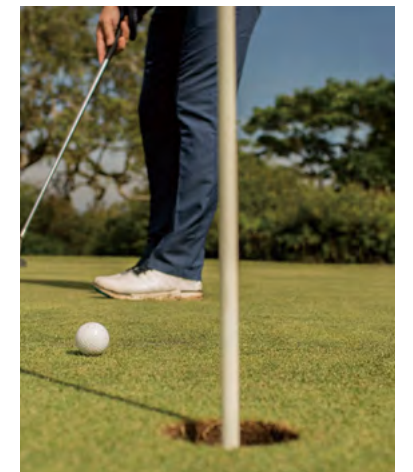


사진 8
체중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주의하며 다운스윙한다.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치는 법

깃대까지 굴러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친다. 어드레스 시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경사지와 몸을 수평하게 맞춘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하면 클럽 헤드의 로프트 각도가 더 높고, 56도를 선택하더라도 경사에 따라 57도, 58도처럼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 볼은 그린에 떨어진 뒤 과도하게 굴러가지 않게 된다. 이때 체중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주의한다. 어드레스에서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경사지와 몸을 맞춰 섰더라도, 다운스윙 과정에서 체중이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체중이 뒤로 빠질 경우 공이 타깃보다 왼쪽으로 날아가며, 콘택트 미스를 유발할 수 있다. 오른발 오르막 어프로치를 할 때 공이 타깃보다 자꾸 왼쪽으로 가거나, 콘택트 미스가 난다면 다운스윙 때 자꾸 뒤로 물러나지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겨울 동안 충분하지 않았던 연습과 아직 새싹이 올라오지 않은 골프장 잔디, 그리고 까다로운 봄바람 등으로 온 그린을 놓친 골퍼라면 오르막 어프로치를 마주하는 상황이 잦아진다. 오르막 어프로치는 무엇보다 상황을 먼저 읽고, 그에 걸맞은 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준만 명확하다면 오히려 계산이 쉬운 샷인 만큼 봄철 시즌 첫 라운드에서도 스코어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



요약 Point

1. 왼발 오르막 라이 어프로치는 공이 떨어져서 굴러야 하는가, 떨어져서 구르지 않아야 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2. 공이 떨어져서 굴러야 할 때는 체중을 왼발에 싣고, 경사지를 이기고 어드레스를 한 후 평소보다 강한 힘으로 다운스윙한다.
3. 공이 떨어져 구르지 않아야 할 때는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경사지와 몸을 수평으로 맞춘 후 다운스윙을 한다.

고요를 찾아서

새벽같이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자기 계발에 열중하는 '갓생 살기'에 지친 걸까?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SNS 등
모든 외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한 일종의 '멍때리기'다.
어떤 식으로 내 안의 고요를 지킬 수 있을까? 과연 그 효과는 무엇일까?

Editor_ 한소영 Photo_ 한경DB, 언스플래시



Z세대는 어릴 적부터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데 익숙하고, 그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차단했다.

유행은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끊임없이 쓸모 있는 정보를 찾아 헤매고, 도파민이 솟는 이야기를 갈구하다 보니 정작 이 모든 콘텐츠와 격리된 고요의 시간이 희귀해졌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유행이 찾아왔다. 바로 '로도깅^{Raw-Dogging} 챌린지'다.

Z세대, 멈춤과 휴식에서 답을 찾다

로도깅 챌린지는 제2의 멍때리기 열풍으로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전(?)을 의미한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일을 멈춘다.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다. 즉 의도적인 멈춤과 휴식이다.

Z세대가 로도깅 챌린지 열풍을 주도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갓생 살기에 빠져 있었다. 갓생 살기란 완벽한 신이라는 의미의 '갓^{God}'과 '생[#]'을 결합한 말로, 철저한 자기 관리와 계획적 생활로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하루를 사는 태도를 뜻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유익함'을 찾아 자의든 타의든 스마트폰 이용, SNS 소통, 각종 쇼츠 시청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피로가 쌓인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정보를 너무나 손쉽게 눈에 담을 수 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스크롤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추천 알고리즘을 따라 이것저것 두서없이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간다. Z세대는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정보와 유행에 민감하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더욱더 심각하다. 어쩐지 갓생 살기에 매진할수록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Z세대가 찾은 해결책이 로도깅 챌린지다.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대신 지루함을 견뎌야 한다. 그러니 고요를 찾는 일은 이미 '도파민 중독'에 빠진 Z세대에게 도전적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Z세대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루함을 견디는 힘을 기를수록 고요한 시간을 향유할 수 있다.

고요의 시간, 마음 챙김 효과로 이어진다

로도깅 챌린지는 갓생 살기보다 내 삶에 이로울까? 이롭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멧때리다가 도태되지는 않을까? 뇌를 잠시 쉬게 하면 일시적으로 창의력이 살아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산책하거나 일상을 잠시 떠나 여행할 때 평소와 달리 생각이 깨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느긋하게 샤워를 하다가 엄청난 수학적 난제를 풀 공식을 떠올린 유명한 수학자도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휴식은 오히려 엄청난 효율을 가져온다. 물론 한두 번 시도로 정신적 디톡스 효과를 바로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뇌를 쉬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집중력이나 정서적 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규칙적으로 멈춤 연습을 함으로써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후에는 디지털 콘텐츠 중독에서 구태여 벗어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외부 자극을 알아차리는 감각 역시 자연스럽게 다듬어지면서 '마음 챙김'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로도깅 챌린지를 명상과 비슷하게 이해하기도 한다. 다만 명상이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로도깅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명상은 로도깅에서 정신적 안정으로 더 나아간 단계다. 다만 보통 사람들은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로도깅은 명상에 이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뇌에 고요나 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로도깅 챌린지는 명상과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고요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도서

독서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원칙에 어긋나지만, 내면의 고요를 찾는 행위로서 로도깅의 준비운동이 되어줄 것이다.



〈새들이 전하는 짧은 철학〉
필리프 J. 뒤부아·엘리즈 루소 지음,
박효은 옮김, 북스톤 펴냄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새는 고민하지 않는다. 햇살을 쬐는 순간, 하늘을 나는 순간 모두 그 순간에 집중할 뿐이다. 그러니 이처럼 마음 챙김에 능한 동물도 없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새는 따스한 봄을 고요히 기다릴 줄 안다. 삶의 무게를 덜고, 고요를 찾는 방법을 새에게서 배워보자.



〈매트 위에 누워서 나를 만나다〉
모세 펠덴크라이스 원저, 티파티 생커리
번역, 김윤진 옮김, 찌파사 펴냄

가만히 쉬고 싶어도 어떤 상태가 자신에게 편한 자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또한 편한 자세라고 생각될지라도 몸이 나빠지게 하는 자세는 결코 몸에 편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매트 위에 누워서 하는 활동만으로도 몸을 이해하고, 긴장감과 강박적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일러스트와 손 글씨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가볍게 읽기에도 좋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과하게 생각한다〉
그랜드 스나이더 그림, 흥남결 옮김,
윌북 펴냄

잠도 못 잘 정도로 생각이 너무 많은 이들을 위한 만화 에세이다. 미국 최고 만화상을 수상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미묘한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표현한 그림들을 보다 보면 불안과 좌절, 완벽주의 강박증으로 빠졌던 생각의 루트에서 벗어나 가볍게 비워낸 내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마치 맑은 내면으로 향하는 지도와 같은 그림책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하는 방법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전화 알림이 울리고, 세상의 뉴스가 궁금한 요즘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로도깅 챌린지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넘어 무엇도 하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다.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뜬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누워도 괜찮고, 앉거나 서거나 자세는 상관없다. 규칙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음악·음식·영상 모두 금지다. 당연히 수면도 금지. 자는 것은 고요하지만 로도깅 챌린지는 아니다.

SNS에서는 로도깅 챌린지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영상 속 인물은 무자극 상태로 긴 시간을 버티는데, 이 고요한 영상이 조회 수 수백만 뷰를 기록하기도 한다. 로도깅 챌린지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챌린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양이다. 처음부터 긴 시간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5분이나 10분의 짧은 로도깅으로 시작해 길게는 몇 시간씩 시간을 늘리면 된다. 로도깅을 한 다음에는 머리가 맑아지거나 생각이 샘솟는 느낌이 드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평가해보는 것도 좋다.

로도깅은 복잡하고 빠른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루틴이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스스로에게 고요를 선물하는 시간, 로도깅 챌린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

로도깅의 원조, '한강 멧때리기 대회'

2014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열린 한강 멧때리기 대회는 지난해 11주년을 맞이했다. 초경쟁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휴식과 여유를 되찾자는 것이 대회의 취지다. 참가자들은 90분 동안 어떤 행동이 나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은 당연히 금지고, 즐기거나 웃어도 실격이다. 살아남은 이들을 대상으로 15분마다 측정하는 심장박동수 안정도를 기반으로 '기술 점수'를 매기고, 현장 관객의 투표로 '예술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해 우승자를 선정한다. 이 대회 참가를 목표로 한다면 로도깅 챌린지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긴 한다. 대회 생각이 로도깅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



공간에서 완성되는 취향의 디테일 소규모 클래식 음악당 가이드



1

대형 홀의 웅장함 대신 소리가 또렷이 살아나는 가까운 거리...
1열의 감동을 설계한 소규모 음악당에서는 거장의 숨결과 악기의 결이 선명하게 와닿는다.
대형 홀에서는 놓친 소리를 발견하는 전문 클래식 공간으로 안내한다.

Writer_ 강은진 Photo_ 각 공연장 제공



3

①

한국 클래식의 자부심 금호아트홀 연세



2

조성진, 임운찬, 손열음, 선우예권. 이름만으로도 세계 클래식계를 설레게 하는 이 스타들에겐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금호문화재단에서 발굴한 '금호 영재' 출신이라는 점이다. 390석 규모의 아담한 금호아트홀 연세는 한국 클래식의 찬란한 오늘을 일궈낸 거장들이 첫발을 댄 상징적 공간이자, 대형 콘서트홀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소리의 밀도'를 구현해내는 작은 우주다. 이곳의 진가는 독주와 실내악에 최적화된 슈박스^{Shoobox} 구조에서 드러난다. 연주자의 미세한 숨소리는 물론, 건반을 누르는 해머의 움직임과 페달의 마찰음까지 선명하게 객석에 닿는다. 거대한 음량에 압도당하는 대형 홀과 달리, 음악의 해상도를 극한으로 높여 연주자의 감정과 테크닉을 시청각적으로 체감하게 만든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 피아노 질감을 가장 정교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금호아트홀 연세의 진짜 경쟁력은 하드웨어를 넘어선 독보적 기획력에 있다. 금호문화재단의 철학 아래 금호 영재·영 아티스트·영 체임버 콘서트가 연중 이어지며 차세대 거장을 쉽 없이 길러낸다. 특히 매주 목요일 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는 이 홀의 정체성이다. 2026년에는 사상 첫 성악가 상주 음악가로 선정된 바리톤 김태한이 '페르소나'를 주제로 네 차례의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동시에, '인터내셔널 마스터즈'와 '금호라이징스타' 등 탄탄한 큐레이션을 통해 클래식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명한다. 가장 쾌적하게 감상하길 원한다면 H열을 추천한다. 앞 열과의 통로 덕분에 시야가 탁 트이면서도 홀 전체의 음향 균형이 가장 완벽하게 이뤄지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사계절의 정취가 흐르는 캠퍼스의 낭만을 지나 홀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관객을 넘어 세계적 거장들이 사랑한 농밀한 음악적 서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지하 1층 ☎ 02-6303-1977

1. 독주와 실내악에 최적화된 슈박스 구조가 돋보이는 금호아트홀 연세 내부 전경
2. 연세대학교 내에 위치한 금호아트홀 연세 전경
3. "별들이 태어나는 공연장"이라고 불리며 거장들의 데뷔 무대로 유명한 금호아트홀 연세.

2

도심 속 어쿠스틱의 정점 엘림아트센터

청라국제도시의 주거 단지과 상업 시설 사이, 건물 상층부에 자리한 엘림아트센터는 일상의 동선 위에 조용히 숨어 있는 전문 음악 공간이다. 이곳의 중심인 엘림홀은 약 3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소규모 홀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천장과 자작나무 마감 구조를 갖춰 개방감과 따스한 울림을 동시에 구현한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설치된 게랄트 뷔(Gerald Woehl)사의 파이프오르간과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를 중심으로 설계한 음향 환경은 음량의 과장 없이 악기 본연의 결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잔향과 명료도의 균형이 뛰어나 실내악은 물론 독주, 오르간 레퍼토리까지 폭넓게 소화한다. 엘림아트센터는 엘림홀 외에도 소규모 공연과 강연이 가능한 체임버홀, 빈티지 아날로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디오 갤러리를 함께 갖춰 '듣는 공간'의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대형 공연장의 스케일 대신, 음악 구조와 울림을 깊이 있게 마주하고 싶은 이에 게 이곳은 밀도 높은 대안이 된다.

- 1. 아시아 최초로 독일 게랄트 뷔 파이프오르간 설치된 엘림아트센터
- 2. 톤마이스터의 음향설계로 섬세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헤르만 아트홀

📍 인천시 서구 크리스탈로 78 엘림존 6층 ☎ 032-289-4275



3

성수동의 비밀스러운 음향 실험실 헤르만 아트홀

트렌드의 중심지 성수동의 붉은 벽돌 빌딩 사이에 클래식의 본질에 집중한 120석 규모의 내밀한 음악 공간이 숨어 있다. 헤르만 아트홀은 독일 톤마이스터의 음향설계를 바탕으로, 공연과 녹음에 최적화된 섬세한 사운드 환경을 구현한다. 연주자와 관객의 거리를 단 몇 걸음으로 좁혀 대형 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밀한 현장감을 전한다.

이곳의 상징은 무대 위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독일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 D-274다. 거장 그리고리 소콜로프를 위해 특수 제작한 이 악기는 유자왕과 랑랑을 거쳐 한국으로 공수됐고, 임윤찬과 손염음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그 음색을 인정해왔다. 전문 음원 녹음과 기획 공연, 리허설과 오디션까지 아우르는 이 공간은 성수동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전문적인 음악적 아지트다.

📍 서울시 성동구 상원6나길 24 지하 1층 B01호 ☎ 02-6212-1747

4

서초동 클래식 벨트의 다정한 무대 페리지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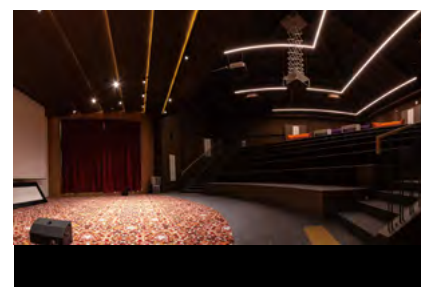


- 3. 갤러리와 공연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초동의 숨은 문화 명소다.
- 4. 클래식에 최적화된 도심형 음악당 페리지홀 내부 전경

예술의전당 인근 클래식 벨트의 한 축인 페리지홀은 2013년 개관한 이래 아티스트와 애호가들의 탄탄한 신뢰를 받아온 공간이다. 202석 규모의 이 클래식 전용 홀은 세계적 거장부터 차세대 유망주까지 폭넓은 무대를 선보이며 10년 넘게 내실 있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독주와 실내악에 최적화된 단정한 객석과 안정적 음향은 연주의 본질에 온전히 몰입하게 만든다. 이곳의 진가는 문턱을 낮춘 사려 깊은 기획력에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런치타임 콘서트'는 페리지홀의 정체성이다. 직장인과 주민을 위해 무료로 개방되며, 연주 중 출입이 자유로운 오픈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해 일상 속에서 클래식을 가장 편안하게 마주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KH바텍이 운영하는 이 세련된 공간은 지하 공연장과 갤러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화려함보다 꾸준함으로 예술과 대중을 잇는 진정성. 이것이 페리지홀이 독보적 도심형 음악당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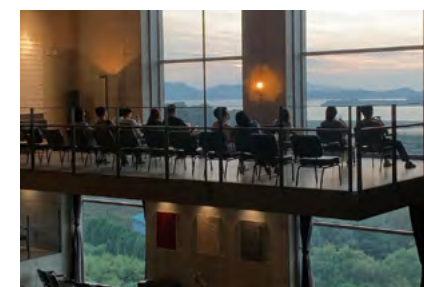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8(주)KH바텍 서울 사옥 지하 1층 페리지갤러리, 지하 2층 페리지홀 ☎ 070-4676-7032

가장 완벽한 청각적 사치 리스닝 스페이스 3



의정부음악도서관
도서관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찬 이곳은 '블랙 뮤직'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감각적 공간미가 압도적이다. 3층 오디오 룸의 고품질 스피커로 최적의 청음을 즐기거나, 스타인웨이 자동피아노가 연주하는 홀에서 악보를 탐닉하고, 직접 피아노를 연주해보는 사치스러운 경험을 선사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80 ☎ 031-828-4850



공치노공크리트
오직 음악 감상을 위해 설계한 이 거대한 사원은 대화와 음료조차 제한된 완벽한 침묵 속에서 사운드의 본질을 마주하게 한다. 1930년대 빈티지 스피커들이 뿜어내는 압도적 음량과 임진강의 낙조가 어우러지는 순간, 음반 감상과 공연장 직관과 모두를 만족시키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율이 흐른다.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161번길 17 ☎ 0507-1374-5800



오디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이 소리 박물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가 설계한 빛의 건축물 자체로 이미 하나의 예술이다.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150년 오디오 역사의 정수를 직접 청음하다 보면 디지털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아날로그 사운드의 깊이를 울림이 예민한 감각을 깨워준다.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8길 6 ☎ 02-574-5175



1. 전시장 곳곳을 풍성한 꽃 장식으로 꾸민 TEFAF 2025 전시장 내부 풍경
2. 회화 작품뿐 아니라 골동품, 장신구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TEFAF
3. 18세기 초 화려한 은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은 촛대
4. 호주의 주목받는 주얼리 디자이너 마고 매킨니의 블룸 콜리어 Bloem Collier. 65.85캐럿의 메인 투르말린과 진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으로 이루어졌다.

렘브란트와 앤디 워홀이 만나는 곳 7,000년 미술사를 아우르는 TEFAF 아트 페어

매년 봄이 되면 네덜란드 남쪽 끝자락의 중세 시대 흔적이 짙은 조용한 도시 마스트리흐트Maastricht가 수많은 미술품 컬렉터, 박물관 큐레이터, 골동품 전문가 등으로 북적인다. 대가들의 회화, 고미술품, 주얼리 그리고 디자인 미술이 집결하는 세계적 아트 페어 도시로 미술 시장에 그 존재를 확고히 하고 있다.

Editor_ 정다영 Photo_ 테파프 아트 페어

세계 3대 아트 페어, TEFAF

테파프TEFAF로 더 잘 알려진 유럽미술박람회The European Fine Art Fair는 유럽박물관연합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아트 페어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7,000년의 미술사를 아우르는 올드 마스터Old Master 회화 작품과 골동품 그리고 디자인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적 미술 박람회다. 1988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 있는 MECCMaastricht Exhibition & Conference Centre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 후 지금도 매년 3월이 되면 같은 장소에서 관람객과 컬렉터들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는 3월 14일부터 19일까지(VIP 프리뷰는 3월 12~13일) 문을 열며, 24개국에서 온 총 276개 갤러리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메인 페어Main Fair에는 총 260명 딜러가 회화, 종이 작품, 골동품, 고대 미술, 주얼리, 현대와 근현대 작품,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작품을 포함한 총 7개 섹션에 걸쳐 전 세계 작품을 소개한다. 4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TEFAF는 작년 행사의 경우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은 아트 페어로 성장했고, 아트 바젤Art Basel과 프리즈 Frieze를 잇는 세계 3대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했다. TEFAF

가 아트 바젤, 프리즈와 가장 큰 차별점은 거장의 명화를 포함한 고미술과 현대미술부터 골동품, 보석 그리고 가구에 이르기까지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는 세대가 바뀐 컬렉터의 취향을 반영해 현대적 작품에 보다 초점을 맞춘 TEFAF 뉴욕 페어를 신설했다. 2016년 파크 애비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에서 봄 가을에 첫선을 보인 후 2021년부터는 연간 1회만 개최하고 있다. 뉴욕 페어에서는 현대와 근현대 회화 작품, 주얼리, 골동품 그리고 디자인 미술품을 소개하며, 5월 뉴욕 아트 위크의 핵심 행사 중 하나가 됐다. 올해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VIP 프리뷰는 5월 14일) 열리며, 전 세계 88개 갤러리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물관 같은 전시 공간

TEFAF 행사장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풍성한 꽃 장식으로 꾸민 전시 홀에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매년 수십만 송이의 제철 꽃을 사용하는 아트 페어는 세계적 화훼 산업의 중심지인 네덜란드의 특징을 반영한다. TEFAF는 팝업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세련된 전시 부스로도 유명하



1

다. 후자는 아트 바젤과 프리즈가 장터 같은 분위기라면, TEFAF는 명품 백화점이라고 비유할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페어와 출품작을 돋보이게 한다. 특히 뉴욕 페어의 행사장인 파크 애비뉴 아모리는 19세기에 지은 유서 깊은 건물로, '도금 시대'라 일컫는 대호황 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설계한 1층과 2층의 히스토리 룸^{Historic Room}들은 개별 전시를 위한 고풍스러운 공간이다. 2024 TEFAF 뉴욕에 처음 참가한 한국의 더페이지갤러리는 소수의 갤러리에만 허락된 히스토리 룸을 배정받았고, 아트 디렉터 정구호 감독이 부스 디자인과 공간 연출을 디렉팅했다. 이 공간에 솔로 부스로 전시한 추상화가 최명영(85) 화백의 단색화 작품들이 VIP 프리뷰 첫날 모두 솔드아웃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여러 언론이 올 TEFAF 뉴욕의 더페이지갤러리 부스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출품작과 전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더페이지갤러리는 2026 TEFAF 뉴욕에 다시 참가하며, 2017년부터 꾸준히 뉴욕 페어에 참가해온 가나아트센터도 출품 갤러리 중 하나다.

투명성을 기반으로 수준, 진위, 보존 상태 등을 심사한 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작품은 페어 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된다. 이런 엄격한 검증 시스템 덕분에 출품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대다수 관람객 또한 전문 지식을 갖고 페어를 찾는다. 런던과 파리 및 뉴욕에서 열리는 유사한 페어가 호기심 있는 관람객의 발길도 이끈다면, TEFAF는 전문 컬렉터와 박물관 관계자들이 주요 고객이다. 특히 마스트리흐트 페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때문에 열정적인 전문 컬렉터들이 주로 찾는다. 현대미술품과 올드 마스터 회화, 아르데코 가구 또는 중국 보석함을 한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점은 TEFAF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골동품과 하이엔드 주얼리는 이 페어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 중 하나다. 안트베르펜에 기반을 둔 보석상 드리스 크리엘^{Dries Criel}의 말을 빌리자면 아트 바젤과 프리즈의 핵심이 '컨셉트'와 '현재'라면, TEFAF의 정수는 '정통성'이다.

현대적인 반지를 17세기 정물화 옆에 전시함으로써 페어는 이 주얼리를 미래의 박물관 소장품으로 만든다. 주얼리가 럭셔리 장신구를 넘어서는 순간이다. 미래의 보물이 아닌 이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골동품을 찾을 수 있는 곳 또한 TEFAF다. 골동품은 도굴 및 도난 그리고 불법 거래 같은 위험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신뢰도 높은 딜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품질의 골동품은 드물고, 그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 또한 오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오랜 기간 참가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딜러와 그들이 출품한 검증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TEFAF는 골동품 컬렉터에게 소중한 기회가 된다. ●

보물의 발견

TEFAF가 세계적 아트 페어로 거듭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소로는 엄격한 작품 수준 관리를 들 수 있다. 아트 바젤의 선정위원회가 매년 참가 갤러리의 5~10%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참가자 리스트를 순환시키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TEFAF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박물관 종사자와 독립 전문가가 페어에 출품된 모든 작품을 관람객에게 공개하기 전에 하루 동안 현장에서 검증한다. 과학적 검증과



© Galerie Canesso

2



© Christopher Ghidoli

3



© Suzanne Nagy - Brimo de Laroussilhe

4

1. 200년 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최근에 발견된 걸작이다. 루이 고피에, '오렌지 수확', 캔버스에 유화, 69×99cm(1798)
2. 주세페 보니토, '화가의 작업실' 캔버스에 유화, 168×235cm(1738~1740)
3. 카를로 젠, '희귀한 더블 보디쇼케이스 캐비닛', 호두나무, 자개 상감, 금, 은, 황동 실선, 220×102.5×36cm(1902년)
4.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 '그리스인과 아마조네스 전설: 테세우스에 의한 안티오페 납치', 템페라, 목판, 42×148.2cm(1440~1450년경)

시간이 빚어낸 맛 Charcuterie

시간이 빚어낸 고기의 예술, 샤르퀴트리 Charcuterie는 단순한 육가공품을 넘어 하나의 미식 장르로 자리 잡았다. 와인 한 잔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특별한 날 식탁을 빛내주는 샤르퀴트리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Editor_ 지연 Photo_ 프리픽, 게티이미지뱅크
Cooperation_ <푸드 & 와인 페어링 콰북>(정리나, 백은주 자음, 한스미디어)

샤르퀴트리는 프랑스어로 '고기'를 뜻하는 Chair와 '조리된'을 뜻하는 Cuit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본래는 돼지고기를 염장하거나 훈연 및 건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한 가공육을 뜻했지만, 지금은 넓은 의미에서 소시지·파테·테린 등 육류를 활용한 모든 요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샤르퀴트리는 와인이나 맥주와 페어링하기 좋고, 훌륭한 술안주이자 식사 전 가볍게 즐기는 애피타이저로도 사랑받는 메뉴다.

주요 샤르퀴트리 종류와 특징 9



살라미 Salami

다진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향신료, 허브 등을 섞어 만든 후 공기 중에 발효시키고 건조한다. 표면의 흰색 가루는 발효 중 생긴 곰팡이로 풍미를 더한다.



페퍼로니 Pepperoni

페퍼로니는 미국식으로 재해석한 가공육이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고 붉은색 고춧가루를 넣어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초리소 Chorizo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살라미로, 훈연한 파프리카를 넣어 훈연 향과 매콤 새콤한 맛이 난다. 건조 방식에 따라 생으로 먹거나, 다양한 스페인 요리에 활용한다.



하몽 Jamón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최소 6개월부터 길게는 4년까지 건조하고 숙성시킨 햄이다. 얇게 저며서 먹으며,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



프로슈토 Prosciutto

이탈리아의 대표 생햄으로,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건조하고 숙성시킨다. 부드럽고 짭짤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달콤한 과일과 조화를 이룬다.



파테 Pâté

동물의 간이나 고기, 생선 등을 곱게 갈아서 페이스트나 무스 형태로 만든 것. 허브, 향신료, 와인, 브랜디 등을 넣어 맛과 향이 매우 풍부하다.



테린 Terrine

다진 육류나 생선, 채소 등을 층층이 쌓아 틀에 넣고 차갑게 굳힌다. 파테와 달리 재료를 완전히 갈지 않고 큼직한 덩어리나 조각을 층층이 쌓아 만든다.



리에트 Rillette

프랑스 요리로,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 푹 익혀 부드럽게 찢은 뒤 지방과 섞어 굳힌 스프레드의 일종. 다른 가공육과 달리 갈지 않고 실처럼 찢어 만든다.



살시차 Saliccia

이탈리아식 생소시지. 훈연이나 숙성 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소시지로, 일반 소시지보다 씹는 맛이 좋다.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Charcuterie and Wine Pairing

샤르퀴트리에는 치즈만큼이나 그 종류가 방대하고,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와인도 다양하다. 샤르퀴트리와 와인을 페어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로컬 페어링이다. 특정 지역에서 자란 포도로 빚은 와인과 그 지역에서 만든 샤르퀴트리는 서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이를테면 스페인 리오하 지역의 템프라니오 품종 레드 와인과 하몽 이베리코, 이탈리아 키안티 지역의 산조베세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과 피노키오 살라미,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 누아 품종 레드 와인과 장봉 페르실레를 같이 먹거나, 미국 내파밸리에서 메들로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에는 북미식 햄을 곁들이는 식이다. 이러한 로컬 조합은 와인과 샤르퀴트리의 맛을 서로 끌어올리는 경험을 선사해준다. 두 번째는 샤르퀴트리 종류에 따라 와인을 페어링하는 방법이다.

샤르퀴트리 종류에 따른 와인 궁합

샤르퀴트리는 가공 방식을 기준으로 나뉘며, 염장 건조 훈제 방식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크게는 햄류와 소시지로 나눌 수 있다.



익힌 햄 + 화이트 와인

햄은 보통 돼지의 다리나 어깨 같은 큰 덩어리 고기를 가공해 만든다.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스페인의 하몽, 프랑스의 장봉이 대표적인 햄이다. 햄 역시 만드는 방식에 따라 풍미와 식감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익혀서 만든 햄과 생고기를 염장하고 건조시킨 햄을 구별해야 한다. 익힌 햄은 대부분 연분홍색 컬러다. 리슬링이나 피노 그리지오 품종의 와인, 이탈리아 소아베 지역 와인처럼 산뜻한 산미와 과일 향을 지닌 화이트 와인이 잘 맞는다. 가벼운 스파클링 와인도 추천할 만하다. 화이트 와인의 상큼한 신맛은 햄의 짠맛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기름진 풍미를 깔끔하게 잡아준다. 햄 중에서 간혹 훈제 향이나 스모키 풍미가 강한 것이 있다. 이런 풍미가 짙은 햄을 먹을 때는 오크 숙성한 샤르도네 품종의 미국 화이트 와인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본 기사는 도서 <푸드 & 와인 페어링 콕북>의 '샤르퀴트리와 와인 페어링'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해 수록했습니다.



염장 건조 햄 + 레드 와인

염장 건조 햄은 대체로 색상이 붉고 식감이 쫄득하다. 김치처럼 아주 얇게 슬라이스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햄은 레드 와인과 더 잘 어울린다. 건조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고기의 풍미는 더 진해지고, 기름진 맛도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염장 건조 햄에는 미네랄리티가 있으면서도 산도 높은 레드 와인을 추천한다. 프랑스의 가메, 피노 누아 품종 레드 와인이나 이탈리아의 산조베세 품종 와인 중에 고른다.



소시지 + 레드 와인

소시지는 고기를 곱게 다져서 만든 가공육으로, 주로 내장이나 인공 케이싱에 고기소를 채워 보관한다. 이탈리아의 살라미, 스페인 초리소, 프랑스 소시송이 대표적 소시지다. 햄보다 더 기름지고 풍미가 강렬하며 식감도 질기다. 그만큼 파워를 지닌 와인이 필요하다. 허브 향이 강한 이탈리아 산조베세 품종이나 향신료 향이 강한 쉬라, 시라즈, 그르나슈, 가르나차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을 선택한다. 와인이 지닌 검붉은 베리의 과실 향은 달콤한 뒷맛을 입안에 남기며, 단단한 타닌이 지방을 깔끔하게 잘라주고 단백질을 녹여준다.



파테와 테린 + 스파클링 와인

고기나 간을 다지고 으갠 다음 몰드에 넣고 굳히거나, 오븐에 구워 만드는 파테와 테린은 다른 샤르퀴트리와 비교할 때 맛은 진하고 질감은 부드럽다. 그래서 와인을 고를 때도 기름진 질감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산도가 페어링의 포인트다. 상큼한 맛이 나거나 신선한 과실 향이 나는 와인이라면 레드, 화이트, 로제 등 모두 잘 어울린다. 그중 한 가지만 꼽자면 단연 스파클링 와인이다. 산도가 낮은 스파클링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확실한 산미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



<푸드 & 와인 페어링 콕북>은

푸드 디렉터로 활약하는 정리나 디렉터와 쉽고 재미있는 와인 강의로 유명한 백은주 교수가 함께 쓴 책으로,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과 와인 페어링'의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와인을 좋아하지만 평소 어떤 음식과 매치해야 할지 어려웠다면, 또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어떻게 하면 음식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지 궁금하다면 이 책이 최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한강의 독서가 향하는 질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한강은 지난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의 독서 역시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닐지.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그의 독서 목록을 들여다본다.

Editor_ 한소영 Photo_ 한경DB

2024년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그가 10여 년 전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의 서재’에서 소개한 다섯 권의 책이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수상 직후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 한강 저서에 비해 이 책들이 역주행 수준의 엄청난 인기를 끈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흥행성이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완독을 포기할 법한 ‘고약한’ 책들이

다. 다섯 권의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파스테르나크의 수필 <어느 시인의 죽음>,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단편소설과 시를 엮은 단편집 <이별 없는 세대>,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삶과 예술을 그린 <케테 콜비츠>(연구가이자 작가 카테리네 크라머가 썼다), 임철우의 단편집 <아버지의 땅>이다. 이 중에서 가장 얇은 책으로 만만해 보이는 <이별 없는 세

대>는 아름다운 책 표지와 달리 전쟁의 참상을 혹독히 마주해야 하는,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러나 한강의 독자라면 그가 왜 이 책을 인생 책으로 꼽는지 알 수 있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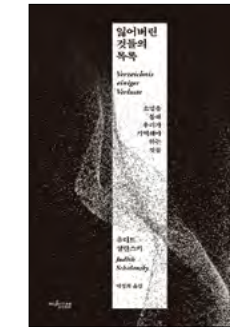
저자 볼프강 보르헤르트는 1921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부터 글을 써온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다. 1945년 프랑스군 포로가 되어 수용소로 이송되던 중 탈주해 고향 함부르크로 돌아왔지만 병이 악화해 쓰러졌다. 그는 작품 대부분을 죽음을 앞둔 2년 남짓한 기간에 병상에서 집필했으며, 1947년 스물여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표제작인 ‘이별 없는 세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만남도 없고 깊이도 없는 세대다. 우리에게 깊이는 끝 모를 나락이다. 우리는 행복도 없고 고향도 없고 이별도 없는 세대다. 우리의 태양은 희미하고, 우리의 사랑은 비정하고, 우리의 젊음은 젊지 않다.”

지금 세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단편집은 언뜻 가벼운 소재로 보이는 제목의 글에서 전쟁의 참상과 폭력, 인간의 고독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볼링 레인’에서는 전쟁 중 참호에 숨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머리에 총을 겨누는 병사들이 꿈속에서 흡사 볼링 레인 위에서 머리가 구르는 듯한 소리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커피 맛’에서는 같은 탁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들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고독과 절망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수십 년 전에 쓰인 소설이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인 듯 절실히 다가온다. 현재는 여전히 과거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결코 가볍게 읽기 어려운, 가볍게 읽어서도 안 될 작품이지만, 한강이라는 이름을 믿고 펼쳐보길.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문학으로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읽고 있다고 언급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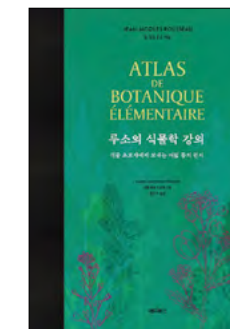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

유디트 살란스키 지음,
박경희 옮김, 뮤진트리

세계 역사는 잃어버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유디트 살란스키의 에세이. 사라진 것 중 열두 가지를 선정하고, 소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상실과 부재, 여백이 어느 정도까지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책과 함께 떠오르는 한강의 책은?

<희랍어 시간>(문학동네, 2011)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영원과 같은 찰나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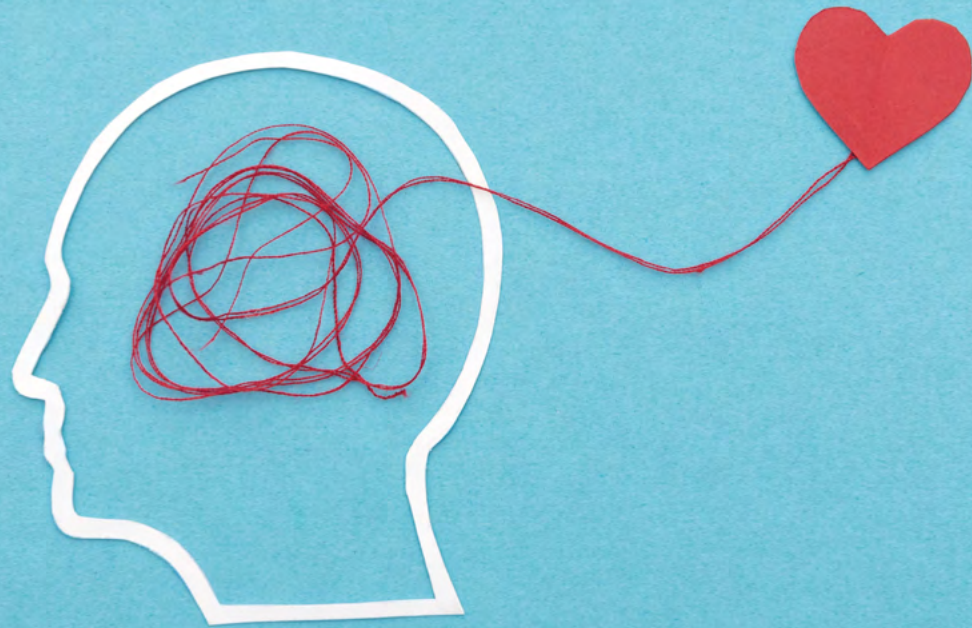
<루소의 식물학 강의>

장자크 루소·카렝 뒤랭 프로제 지음, 황은주 옮김, 에디투스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소설가, 교육 이론가로 알려진 장자크 루소는 식물 애호가로도 유명하다. 그의 식물을 향한 애정이 드러나는 에세이나 편지 등을 엮은 책. “저는 식물학을 사랑합니다. 매일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리다 제가 식물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책과 함께 떠오르는 한강의 책은?

<빛과 실>(문학과지성사, 2025)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과 미발표 시, 산문이 수록됐다. 특히 정원을 가꾸면서 겪은 일과 소박하고 조용한 일상을 그린 ‘정원 일기’가 주목받았다.



일일 뇌 안티에이징

이른바 '1일 1팩'으로 피부는 매일 관리하고, 멋진 식스팩을 만들겠다고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뇌에는 무얼 해줬는가? 뇌를 안티에이징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Editor_ 한소영 Photo_ 게티이미지뱅크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 흔히 단것을 섭취한다. 밥을 먹으면 비로소 머리가 다시 굴러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뇌가 필요한 건 포도당^{Glucose}뿐이니 까 이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섭취야!' 라고 자부하면서. 사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뇌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쉽게 한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뇌는 우리 몸의 2%에 불과한 무게로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쓴다. 이러한 대식이 뇌의 영양원은 포도당만이 아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플랜 B로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Ketones}라는 대체에너지를 만든다. 지금까지 케톤체는 흔히 금식하거나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잠깐 가동되는 보조 엔진이나, 지방을 태우고 남은 부산물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실제로 케톤체가 뇌 건강과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는 점이 새롭게 주목받

고 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공복 상태일 때, 장시간 단식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일 때 우리 몸은 간에서 지방산을 분해해 케톤체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만든 케톤체는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뇌세포 안으로 들어간 케톤체는 놀랍게도 포도당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뇌에 뛰어난 대체 연료인 셈이다.

뇌를 망치를 습관, 뇌를 살리는 습관

케톤체는 포도당이 부족할 때 뇌를 포함한 신체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렇게 뛰어난 대체 연료를 공급할 기회도 없이 사람들은 당도 높은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 실제로는 당이 뇌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케톤체는 포도당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케톤체는 몸에 저장된 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 몸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 대신 케톤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식단을 키토제닉^{Ketogenic}, 즉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이른바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한다. 단, 이 식단은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영양소 부족의 위험이다.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 곡물, 일부 채소를 제한하다 보면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진다.

확실한 건 몸에 나쁜 당이 뇌에 좋을 리 없다는 점이다. 예민한 뇌에는 '착한 영양'이 필요하다. 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식습관부터 바꾸자. 키토제닉 식단도 좋지만, 너무 강박적으로 행하기보다 식이 섬유를 적당량 섭취하고, 비타민 B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며,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고, 등 푸른 생선을 먹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뇌에 진정한 휴식은?

잠을 충분히 많이 자면 뇌가 쉬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연구도 있다.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수면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사실 수면과 뇌의 활성화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중요하지만, 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휴식보다 지속적 자극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뇌는 근육과 비슷하다. 뇌 역시 근육을 단련할 수 있고, 단련하면 비대해진다. 다만 뇌와 근육의 다른 점은 근육은 트레이닝을 중단하면 바로 약해지지만, 뇌는 단련을 멈춰도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는 점이다. 적절하게 몸을 쉬게 하는 것은 뇌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지만, 구체적 자극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 자극이란 명상을 통한 자극,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뇌를 단련시키는 자극을 말한다. 긴 수면이 그다지 필요 없다고 하니 다소 씁쓸하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 소소한 도전을 해보길 권한다. ●

Check! 뇌의 에너지원, 포도당 vs 케톤체 비교

구분	포도당	케톤체
에너지로 사용되는 조건	일상적 상황	단식, 저탄수화물 식사를 할 경우
에너지 효율	표준	더 높음
뇌 에너지 공급 안정성	혈당 변동에 따라 불안정	매우 안정적

WOORI BANK GLOBAL NETWORK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첸나이 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

뭄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3 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사무소

팔라렐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헬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폴란드사무소
TEL 48-323-07-6417
ADD Uniwersy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



WEALTH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와 부에 대한 해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사는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의 미래를 설계하다

TWO CHAIRS W 판교

자산의 성장 속도가 빠른 판교에서 자산관리는 전략의 영역으로 진화했다. 일상과 금융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정예 PB들이 원 팀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단순한 운용을 넘어 부의 가치를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TWO CHAIRS W 판교다.

Writer_ 강은진 Photo_ 박충렬

판교의 부는 조용하지만 빠르다.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의 자산 구조 역시 급격히 변화한다. 기술과 자본이 동시에 응축되는 이곳에서 자산관리는 더 이상 단순한 운용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성장 속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특유의 변동성을 관리하며, 나아가 미래의 자산 이전까지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판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과거 제조업과 금융의 중심지에 집중되던 부의 축은 IT·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판교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TWO CHAIRS W 판교가 문을 열었다.

일상과 금융의 교차, '프라이빗 갤러리'로 초대

TWO CHAIRS W 판교(이하 TCW판교)의 첫 번째 경쟁력은 '압도적 접근성'과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균형 있게 공존한다는 점이다. 지역 내 최대 랜드마크인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피스동에 위치해 고객은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기다가 자연스럽게 자산관리 상담으로 동선을 옮길 수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야 했던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와 달리, TCW판교는 고객의 일상적 라이프스타일 흐름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온 형태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백화점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확실히 다른 결의 공간이 펼쳐진다. 외부 소음과 시선이



판교 중심부가 한눈에 펼쳐지는 카페테리아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에 문을 활짝 연 TCW판교 변재옥 센터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핵심 멤버들

철저히 차단된 구조 속에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은 기능에 따라 명확히 분리돼 있다. 고객을 맞이하는라운지는 대화의 긴장을 완화하고, 프라이빗 상담실은 자산배분이나 투자전략 같은 민감한 논의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인 이슈나 가업승계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략을 정리한다. 이러한 기능적 완성도 위에 더해진 것이 '프라이빗 갤러리'를 콘셉트로 한 공간 연출이다. 센터 곳곳에 배치된 그림들은 단순한 장식이라 아니라, 사무적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결을 한층 부드럽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다. 고객이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차분히 정리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다. 지식과 예술, 그리고 정교한 금융 솔루션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이 공간은 판교 오피니언리더들이 자산관리의 기준으로 삼기에 손색이 없다.

집단 지성이 제안하는 독보적 솔루션

판교의 자산가들은 본인의 전문 분야만큼이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자산 배분 전략을 선호하며, 변화의 속도가 빠른 환경에 놓인 만큼 자산관리 역시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요구한다. TCW판교는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규모의 확장보다 '솔루션의 깊이'에 집중해왔다. 그 중심에는 변재옥 센터장, 한수연 PB지점장, 오지영 PB팀장이 있다.

센터를 이끄는 변재옥 센터장은 손익 달성률 100%를 세 차례 기록하며 '그랜드마스터'에 오른 인물이다. PB지점장 평가 등급 1위와 최우수 PB 2회 선정 이력은 그가 단순히 수치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과의 신뢰를 성과로 축적해온 베테랑임을 보여준다. 한수연 PB지점장은

기업 여신과 외환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관리 감각을 갖춘 전문가다. 런던 지점 파견근무를 통해 해외 금융 환경을 직접 경험했으며, 2021년 매경 선정 대한민국 대표 자산 컨설턴트로 이름을 올렸다. 외국환관리법 관련 강사로 활동해온 이력에서도 실무 중심의 전문성이 드러난다. 오지영 PB팀장은 CFP 자격을 보유한 퇴직연금 전문가로, 기업 임직원 대상 세미나와 콘텐츠 감수 등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교 고객들의 정교한 은퇴 설계와 자산운용을 담당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부하는 PB'라는 점이다. 전일 석간부터 당일 조간까지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흐름을 점검하며 시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다. 여기에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지표와 오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을 결합해 고객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개인 자산은 물론 법인, 세무, 부동산 이슈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 시스템은 판교 자산가들에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는 신뢰를 형성한다. TCW판교의 원 팀 전략은 속도와 합리성을 증시하는 판교 고객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로 이어진다.

부의 가치를 완성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TCW판교가 지향하는 서비스의 종착지는 단순한 수익률

관리를 넘어 고객의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지적 파트너십을 향한다. 특히 젊은 창업주와 CEO가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법인 특화 솔루션을 대폭 강화했다. 가업승계나 비상장주식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본사의 전담 조직 및 외부 전문가 그룹을 윈스톱으로 연결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식 공유를 증시하는 판교 자산가들의 커뮤니티 니즈를 반영한 프라이빗 세미나 역시 TCW판교만의 차별점이다. 부동산투자 전략부터 최신 세계 개편안까지 고객의 관심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깊이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입지를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은 금융과 문화, 쇼핑이 결합된 독보적 서비스 경험을 선사하며 자산관리의 범위를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한다.

금리 변동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TCW판교는 더욱 본질에 집중한다. AI와 혁신 성장 섹터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산의 이전을 안정적으로 돕는 상속·증여 설계에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단순히 금융 상품을 제안하는 조력자를 넘어 고객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성장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이것이 TCW판교가 정의하는 새로운 부의 완성이다.



가변형 글라스 월로 고객의 니즈에 따라 활용도를 높인 TCW판교 회의실



고객의 프라이빗한 시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응접실



special interview

“판교 오피니언리더 사로잡는 ‘전략적 파트너’ 될 것”

TWO CHAIRS W 판교 변재옥 센터장

Q. 수도권 핵심 거점인 TWO CHAIRS W 판교를 이끌게 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부인 판교에 ‘성공적인 출점’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무게감을 기분 좋은 성취감으로 바꿔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 믿습니다.

저에게 판교 센터는 하나의 ‘화실’입니다. 비록 정예 인원 6명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이지만, 새하얀 도화지에

정성껏 그림을 그리듯 판교만의 역동적 색깔을 담은 자산관리 센터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각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들과 함께 조기에 TWO CHAIRS W를 대표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완벽한 자산관리 파트너(PB)’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PB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고객을 향한 진정성이 필수입니다. 저는 고객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인연이 닿은 ‘사람’으로 대합니다. 때로는 저의 이익보다 고객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이타적 태도가 결국 견고한 신뢰의 바탕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큰 손실로 인해 은행을 깊이 불신하던 고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성급하게 상품을 제안하지 않고, 오랜 시간 그분의 상처 입은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고 사소한 일상까지 챙기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결국 진실의 힘은 통했고, 그분은 매년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보내주실 만큼 가족 같은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판교에서도 고객과 깊이 공명하는 자산관리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Q. TWO CHAIRS는 세무와 부동산 서비스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TWO CHAIRS만의 독보적 솔루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고객 자산가들의 가장 깊은 고민은 결국 상속과 증여를 포함한 ‘부의 이전’으로 수렴됩니다. 단순히 파편화된 절세 정보는 이미 AI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기 때문입니다. 이에 TWO CHAIRS W 판교는 단순 정보를 넘어 상속·증여의 정교한 구조 설계와 부동산투자 및 거래 컨설팅이라는 고도화된 솔루션을 우리만의 독보적 차별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판교의 PB들은 이러한 고객 니즈에 완벽히 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법인세는 물론 판교 지역 특화 부동산시장 정

보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무에 투영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단계를 넘어 고객의 인생에 가장 최적화된 자산 구조와 이전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Q. 올해 TWO CHAIRS W 판교가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센터장님의 개인적 포부가 궁금합니다.

TWO CHAIRS W 판교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신생 센터이지만, 정예 인재들의 견고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올

연말에는 TWO CHAIRS를 상징하는 독보적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센터장으로 서 첫발을 내딛는 무대가 ‘기회의 땅’ 판교인 만큼 이 역동적 에너지를 동력 삼아 지역을 움직이는 오피니언리더 100분을 우리 센터의 가족으로 모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판교의 리더들이 ‘자산관리’ 하면 가장 먼저 TWO CHAIRS W 판교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판교만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

TWO CHAIRS W 판교 핵심 PB PROFILE



변재옥 센터장

- 美 Midwest University ESG 경영 박사과정 중
- 단국대 경영학 석사
- 소속장 KPI 평가 등급 S 3회
- 손익 달성률 100% 3회 그랜드마스터 달성
- PB지점장 평가 등급 1위 달성, 최우수 PB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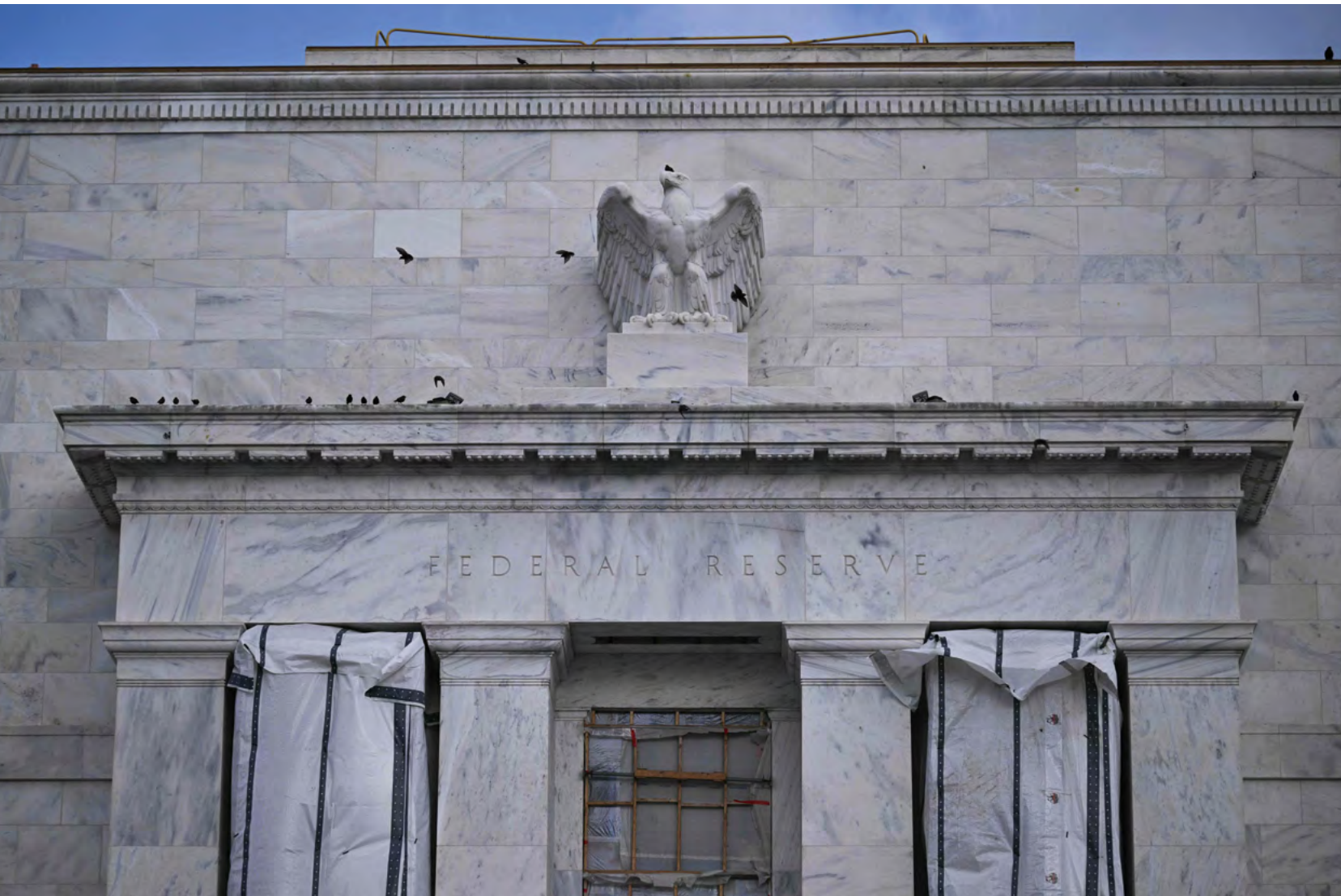
한수연 PB지점장

- 기업 여신 및 외환 경력 13년
- 초고액 자산가 관리 PB 경력 10년 (TCP청담, TCE강남센터 등)
- 런던지점 파견 근무
- 2021년 매경 선정 대한민국 대표 자산 컨설턴트
- 2022년 매경비즈 주최 프리미엄 미국 포럼 시황 및 외국환관리법 관련 강사 등



오지영 PB팀장

- CFP 자격과 FA 경력
-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퇴직연금 세미나 및 사내 기사 인터뷰 및 감수 등 퇴직연금 전문가



케빈 워시가 이끌 연준의 통화정책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이 2026년 5월이면 임기를 마친다. 그 후임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 트럼프 정부가 왜 그를 연준의 수장으로 지명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인물이고 새 의장 취임 이후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해본다.

Writer_ 박형중(우리은행 Economist) Photo_ 프리픽, 한경DB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Kevin Warsh)를 지명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줄곧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 이사회와 공개적으로 대립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자연스럽게 “백악관에 우호적인 연준 의장의 등장”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워시가 과거 월가에서 활동했고 시장과 소통하는 데 능한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그를 ‘시장친화적 연준’의 신호로 해석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러나 워시라는 인물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예상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는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규율을 중시하는,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매파적 인물에 가깝다. 트럼프가 기대하는 ‘금리인하에 적극적인 연준 의장’과는 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워시의 통화정책 철학

금융시장에서 불안 조짐이 감지되면 연준 이사회는 종종 ‘선제적 금리인하’나 ‘보험성 인하’라는 명목으로 금리를 낮춰왔다. 파월 체제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했다. 그

러나 워시는 이러한 통화정책을 본질적으로 경계해왔다. 그의 시각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상승둔화가 명확하고 지속적이거나, 혹은 실물경제의 기초 악화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는 특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는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이나 자산가치의 조정 가능성만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연준이 실물경제가 아니라 자산가치를 타기팅(Targeting)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워시의 말을 빌리면,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선택’이다. 적어도 ‘시장이 원하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논리는 그의 통화정책 프레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워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빈자리를 메우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매우 비판적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결국 그는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나 투자자 심리에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경계하며, 통화정책의 본질적 역할을 화폐가치의 신뢰성 유지와 거시경제적 균형 달성에 둔 통화정책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워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빈자리를 메우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매우 비판적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워시의 양적완화 비판

워시의 이러한 성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 이사회가 보인 양적완화(QE)에 대한 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위기 대응 차원의 양적완화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도 자산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장기간 대규모 자산 매입을 지속하는 정책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상시적으로 개입한다면 시장의 가격결정(가격 발견) 기능은 약화되고, 자산가치에는 구조적 왜곡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워시는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연준 이사회의 정치화를 가속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자산가치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양적완화 정책은 연준 이사회를 점점 정치적 압력에 노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의 연준 이사직 사임과 일정 부분 연결된다. 워시는 2차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구조화되는 흐름에는 분명한 우려를 표해왔다. 결국 그는 2011년 14년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이사직을 5년 만에 내려놓았다. 공식

적으로는 개인적 사유였지만, 당시 확대되던 비전통적 정책기조와 빛은 철학적 긴장이 배경에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가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선택한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 워시는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세부 철학이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신뢰 가능하고 행정부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대일 가능성이 크다.

워시는 공화당 성향의 인물로 분류되며, 트럼프 진영과 정치적 거리도 상대적으로 가깝다. 게다가 그는 연준 이사회 경험을 갖춘 '검증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시장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데 중요한 요소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워시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도 시장이 곧바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워시의 이력이 연준 이사회 내부의 전



통적 엘리트 코스와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는 경제학 박사 출신 정통 중앙은행 관료가 아니라, 법률과 금융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준 이사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이러한 이력은 연준 이사회가 특권적 배경을 가진 엘리트들로 비대해졌고, 관료적 권력이 확대됐다는 트럼프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연준 이사회를 '통제 불가능한 엘리트 집단'으로 보는 트럼프의 시각에서 워시는 내부를 잘 알면서도 행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와 준칙에 근거해 판단하는 연준

연준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된 이후 워시는 구체적인 정책 결정 경로나 금리 결정 경로에 대해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면서 그의 정책 성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칙을 대하는 태도다. 과거 발언과 행적을 종합하면 워시는 금융시장의 단기적 불안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연준보다는 데이터와 준칙을 근거로 판단하는 연준에 더욱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책 수단의 선택보다 정책반응 함수(Policy Reaction Function)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워시 체제는 파월 체제와 일정 부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대응의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필요할 경우 실용적으로 대응하되, 그 판단 기준은 기존보다 엄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트럼프가 기대하는 조기 금리인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둔화와 경기 모멘텀 약화라는 명확한 데이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워시의 등장은 통화정책 완화 신호라기 보다는 연준 이사회의 정책 운용 기준과 그 허용 범위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인사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



박형중
우리은행 Economist



집은 좁아도 삶은 넓게, 셀프스토리지의 관심받는 이유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셀프스토리지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셀프스토리지 시장의 성장배경과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Writer_ 조규성(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전문가) Photo_ 프리픽

“집은 늘어나지 않는데, 짐은 계속 늘어만 간다.” 현대 도시인이 겪는 가장 고질적 고민 중 하나다. 대형 아파트에 살든, 대학가의 작은 원룸에 살든 공간 부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숙제와도 같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주거 공간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심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며 무한정 면적을 늘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세대별 지하창고를 앞다투어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천덕꾸러기가 된 집들은 거실 한구석, 침대 밑, 베란다를 점령하게 된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아무리 큰 아파트도 작아 보이는 것이리라. 이러한 절박한 공간 갈증에 도움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라는 공간이다. 다른 말로는 ‘개인형 창고’나 ‘공유 창고’라고도 부른다.

소유가치에서 이용가치로 패러다임 이동

우리는 이제 가전을 사지 않고 ‘구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케어받는 상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차가 필요할 땐 앱으로 ‘공유 차량’을 불러 이용하곤 한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조건 물건을 소유해

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에 익숙해진 것이다. 셀프스토리지 역시 이러한 시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내 짐을 보관하기 위해 수억 원의 대출을 더 받아 넓은 집을 소유하기보다 내 생활권과 가까운 곳의 공간을 필요한 만큼만 ‘창고 구독’해 이용하는 것이다. 즉 ‘공간도 스트리밍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왜 사지 않고 구독하는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월 구독료를 내면서까지 셀프스토리지를 찾는 것일까?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구독의 편리함이다. 구독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리에 대한 불편함을 구독료에 녹여 관리를 대행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바쁜 현대인은 소유하지 않고 구독하며 관리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다. 셀프스토리지의 경우 짐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항온 및 항습 같은 환경을 관리해주기도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다. 구독은 구독료 항목으로 비용이 지출되지만, 소유 역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시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지불한 셈이고, 대출이나 할부를 이용했다면 금



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비용의 총액이 구독료 총액보다 비싸다면 꼭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희미해질 수 있는 것이다. 구독은 기본적으로 이용에 가치를 두고 있기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이용해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가전 같은 최종 소유형 구독은 다르겠지만, 창고나 차량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납이 가능한 경우는 자산을 가볍게 하고 기회비용을 줄이는 도구가 된다. 더구나 비싼 집에 사람의 거주가 아닌 짐 보관을 위한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공간 낭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문화의 변화다. 2024년 기준 전국 1인가구 비중은 이미 30%를 넘어섰으며, 서울은 38%를 상회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40㎡(약 12평) 이하의 소형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중 소비성향이 강한 요즘 1인가구에게 캠핑 장비, 골프백, 계절별 의류 같은 것은 소형 주거지에서 감당하기 벅찬 짐들이다. 이들에게 셀프스토리지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내 집의 거실과 드레스 룸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구독 공간인 것이다.

가파른 시장의 성장세

이렇듯 수요가 증가하면서 셀프스토리지의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2023년 200여 개 점포에서 2024년 300여 개 점포로 급성장하기도 했고, 매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약 2,000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2025년 7월에는 셀프스토리지에 대한 용도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유 보관시설)로 정해지기도 했다. 그전까지 셀프스토리지 사업은 건축법상 용도가 불명확해 일종의 회색 지대에 있었는데, 용도가 정해지면서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점포 개설을 위한 신고 등을 할 때 훨씬 명확한 요건이 생겨나 산업 확장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엔 자산운용사 같은 전문 투자자도 투자자산의 임차인으로 셀프스토리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된 것이다.

IoT와 AI라는 날개를 달다

우리가 떠올리는 일반적인 창고는 교외에 위치한 한적하고 대형화된 공간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셀프스토리지는 도심형 공간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그 비중이 가장 높게 포진되어 있다. 또 지금의 셀프스토리지는 IoT와 AI를 활용해 운영되는 스마트한 공간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이 시장은 IT 기술을 통해 무인으로 운영되며,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IoT 기술 덕분에 사용자는 앱으로 예약하고, 모바일 스마트 키로 24시간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둘러보는 것도 앱을 통해 임시 출입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온습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어 최적의 보관 환경(항온·항습)을 유지하기도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AI를 통해 보관 물품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최적의 공간 배치 제안을 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이 무거운 짐

셀프스토리지 형태별 비교

구분	도심형	교외형	배달형
입지 특성	도심 내 상업지구, 주거 밀집 지역의 건물 지하 또는 지상층	도심 외곽, 고속도로 인근의 넓은 부지	위치 무관 (저렴한 외곽 물류센터 기반)
접근성	도보 및 대중교통·승용차 이용 가능, 접근 빈도 높음	차량 필수, 접근 빈도 낮음	앱으로 픽업/배송 요청 가능
주요 고객	1인가구, 도심 소상공인, 취미 수집가(피겨, 와인 등)	이사 화물 보관, 대형 레저 장비 보유자	비대면 서비스 선호층, 차량 미소유자
공간 형태	0.5~3평 내외의 소형 유닛, 철제 캐비닛 형태	컨테이너 박스, 차고형(Drive-up) 유닛	박스 단위 보관, 행어 단위 보관
비용 구조	보관료, 필요 시 부가서비스	보관료	보관료 외 배송비 발생
기술 적용	IoT 항온·항습, QR 출입, 무인 관제	CCTV 등 기본 보안 중심	물류관리 시스템(WMS), 배송 트래킹

을 운반해 셀프스토리지에 넣어주는 등 서비스가 한층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와 침대 아래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인으로서 셀프스토리지

공실로 고민하는 임대인에게 셀프스토리지는 매력적인 임차인이 될 수 있다. 셀프스토리지는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이나 상층부의 외진 공간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접근성만 확보된다면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임대를 한다면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셀프스토리지 경우 무인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사람이 출입 가능한 창고시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동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CCTV나 방재시설이 필요하다. 이 필요 시설의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가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용이긴 하나 화물이 들고 나가는 시설이다 보니 동선이 화물 이동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가장 먼저 체크하겠지만, 임대인은 화물이 움직이면서 건물에 손상

을 주진 않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만약 손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일이 기대되는 도심의 새로운 공간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고, 우리 삶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와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맞물리는 오늘날, 셀프스토리지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아직은 건물의 구석진 공간을 채우는 창고시설로 보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도심 곳곳에서 세탁과 택배 및 개인 취미 공간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허브’로서 셀프스토리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넓은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넓게 살 수 있는 시대, 셀프스토리지가 열어갈 도심 주거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본다. ●



조규성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전문가

미국, 일본, 한국 셀프스토리지 비교표

구분	미국	일본	한국
시장규모	약 40조원	약 8,000억원	약 2,000억원(추산)
가구당 이용률	약 10%	약 1%(도심 지역 높음)	초기 단계(성장 중)
주요 형태	교외형 대형 창고, 드라이브업	도심형 트렁크 룸, 컨테이너	도심형 빌딩 내 실내 창고
성장 동력	잡은 이사, 라이프 사이클 변화	좁은 주택, 수집 문화	1인가구, 주거비 급등, 캠핑 등

자료 출처 Statista, JLL, Mordor Intelligence



아픈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살펴봐야 할 ‘장애인’ 절세 혜택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UN에서 구분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과 치매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유병자로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병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요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Writer_ 홍자영(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_ 프리픽

바야흐로 유병 장수 시대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UN에서 구분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고, 2026년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나 치매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이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세법상 인정되는 장애인의 정의와 어떠한 세금 절감 혜택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란?

세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크게 네 종류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법에 따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

람(월남전 참전 용사 고엽제 피해 환자) 마지막으로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성 난치 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④ 희귀성 난치 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여기에 암환자나 치매환자도 해당할 수 있다. 즉 암환자나 치매환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이나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의 장애인 정의 중 ④ 희귀성 난치 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은 주기적으로 치료받는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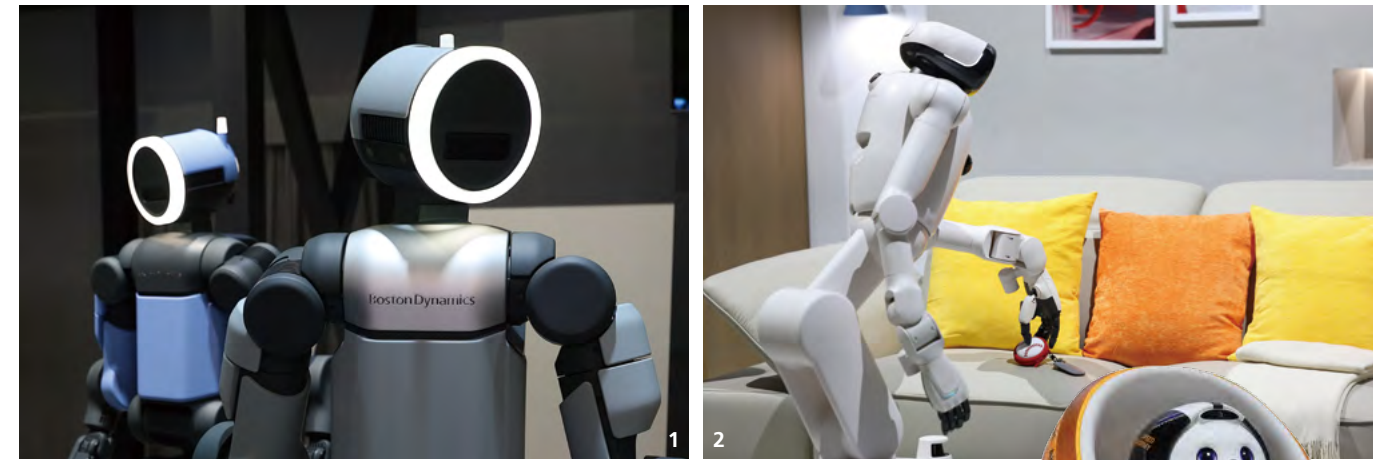




로봇이 일상으로 속~ CES 2026에서 보여준 AI의 현재

지난 1월에 열린 CES 2026은 AI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AI 기술이 로봇, 가전, 자동차 등 실물 환경과 결합한 '피지컬 AI'가 본격적인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CES 2026에서 주목받은 일상과 한층 가까워진 기술을 소개한다.

Writer_ 한소영 Photo_ 한경DB



1. 아틀라스는 산업 현장에서 정교한 센서로 움직이면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한다.
2. 집안일을 도와주는 클로이드. 다만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식탁에 놓는 데 40초 이상 소요되는 등 속도 면에서는 아쉬운 점을 남겼다.
3. 중국 전자 제품 회사 TCL의 컴패니언 로봇 '에이미Aimee'



ROBOTICS

일상이 로봇틱스인 세계

지난해 CES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갖가지 재주를 선보였다. 쇼 무대를 꾸미는 로봇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로봇 기술은 일상과는 다소 괴리된 모습이였다. 그랬던 로봇이 불과 1년 만에 '미래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위상이 바뀌었다. CES 2026에서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로봇이 있었다.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든든한 파트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는 56개 관절과 촉각 센서가 장착된 손을 통해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특히 인간이 쉽게 들기 어려운 최대 50kg의 물체를 2.3m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

로봇은 집안일도 해준다. LG전자가 선보인 차세대 홈 로봇 '클로이드CLOID'는 정말 미래 기술을 일상에서 실현하고

있다. 상체는 인간의 형상을 닮고, 하체에는 바퀴를 달아 문턱 등 집 안의 장애물을 수월하게 피하도록 설계된 클로이드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수건을 개는 등 가사 노동을 도와준다. 음성 기반 생성형 AI를 탑재해 인간의 언어와 표정을 읽고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말고 작고 귀여운 반려 로봇도 있다. 곁에서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은 로봇들이 CES 2026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83%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연평균 성장률. 2027년까지 1만 대를 초과해 2030년에는 3만8,000대에 이를 전망이다.

자료 옴디아Omdia



1. 일반 안경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로키드 글라스'. 초경량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안경 브랜드 레이벤 제품보다 더 가벼운 무게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소개하고 있다.

3.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차량 자회사 모셔널이 개발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주행하는 모습.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돼 운전석이 비어 있다.
4. 아마존의 로보택시 '죽스ZOOX'. 이 자율주행 택시는 운전자는 물론 스티어링휠과 페달, 계기반 등이 아예 없는 것이 특징이다.

SMART GLASSES

스마트 워치처럼 편리한 스마트 안경!

AI를 만난 스마트 안경도 드디어 상용화 단계로 들어섰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스마트 안경을 스마트폰 혁명의 다음 타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 안경은 무거워서 착용하기 불편하고, 배터리 문제와 가격 측면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아 대중화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CES 2026에서 스마트 안경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그 자체였다. 메타의 '레이벤 글라스'는 디스플레이 없는 AI 안경으로, 200만 대 이상을 판매해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이제 스마트 안경은 기존의 화려한 몰입형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일상적 기능에 집중한 초경량 디바이스를 지향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에 탑재된 AI가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시선이 머무는 곳의 언어를 즉시 번역하거나

간단한 내비게이션, 회의 및 발표용 스크립트 지원, 알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지능형 인터페이스인 셈이다. 특히 로키드Rokid, 이븐 리얼리티Even Realities, 주하이 모제 Zhuhai Mojie, 엑스리얼Xreal 등 중국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편, TCL 산하의 '레이네오RayNeo'는 통신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선보이면서 야외 활동 시 스마트폰 없이도 통화 연결이 가능한 시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야말로 제2의 스마트 워치인 셈이다.

2,368만7,000대

2026년 전 세계 스마트 안경 출하량 추정치. 이 중 중국산은 491만5,000대(20.8%)를 차지한다.

자료 IDC

MOBILITY

모빌리티의 이름은 이제 피지컬 AI

자동차 산업 기업들의 전시장은 AI 빅테크 기업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세 가지 핵심 어젠다는 로보택시의 본격적 상용화, 차량 UX의 AI화AIDV, 한계 없는 신유형 모빌리티인 데 로보택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 AIDVAI Defined Vehicle의 핵심, 신유형 모빌리티의 기반도 모두 AI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로서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내다본다. 로보택시는 실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는 30일간 무개입 주행 성공률이 98.4%에 달하고, 인간의 개입 빈도가 1,500km당 1회 수준으로 급감해 상용화를 앞섰다고 평가받는다. 테슬라는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우버·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과 협력해 서비스형 로보택시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

다. 마일당 비용이 1달러 수준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절감, 매일 24시간 운영 가능성 등과 맞물려 폭발적 시장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AIDV는 옵션이 아닌 생존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기능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물류 및 이동 서비스에 최적화된 목적 기반 차량 Purpose-Built Vehicle, PBV부터 도심 배송을 책임질 자율주행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영역은 산업과 일상의 모든 분야에 한계 없이 스며들고 있다. ●

1/9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용 시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 대비 9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자료 테슬라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설문 조사 바로 가기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3월 13일(금)~4월 24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스 스팀머
EH-XS01(2명)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킹(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킹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 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WON뱅킹 바로 가기

Welcome to TWO CHAIRS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TWO CHAIRS W

청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313, 455, 510)
도곡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50, 540)
센트럴시티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T. 02-3482-6586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더트리니티 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내선 212, 213)
잠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00 롯데월드타워 12층 T. 02-3213-0300(내선 210, 410)
판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현대백화점 판교점 11층 T. 031-8016-9729(내선 311, 411)
송도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49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제1동 15층 T. 032-858-3692(내선 210, 212)
부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 4층 T. 051-741-3625(내선 213, 214)
대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13층 T. 053-746-6359(내선 311, 312)



TWO CHAIRS W 도곡



TWO CHAIRS W 청담

TWO CHAIRS Exclusive

본점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67(내선 3312, 3316)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3, 316)
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4, 405)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종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 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TWO CHAIRS는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우리은행 프라이빗 뱅킹 브랜드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우리은행 TWO CHAIRS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채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어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 유약 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꽃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929(2026.02.09~2027.02.08)